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한국어 연어 교육 연구

-명사를 중심으로-



2010年

HANSUNG
UNIVERSITY

漢城大學校 大學院

韓國語文學科

韓國語教育專攻

신 아 랑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李恩羲

한국어 연어 교육 연구

-명사를 중심으로-

A Study of Korean Collocation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Focused on the Noun-

2009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大學院

韓國語文學科

韓國語教育專攻

신 아 랑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李恩羲

한국어 연어 교육 연구

-명사를 중심으로-

A Study of Korean Collocation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Focused on the Noun-

위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論文으로 제출함

2009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大學院

韓國語文學科

韓國語教育專攻

신 아 랑

신아라의 文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9年 12月 日



HANSUNG
UNIVERSITY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목 차

제 1 장 서 론	1
-----------------	---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제 2 절 선행 연구 검토	3
제 3 절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8

제 2 장 이론적 배경	10
--------------------	----

제 1 절 언어의 개념과 범위	10
1. 언어의 정의	12
2. 언어의 유형	13
3. 한국어 교육에서의 언어 범주	18
제 2 절 언어 교육의 중요성	22

제 3 장 한국어 교재의 언어 분석	27
---------------------------	----

제 1 절 분석 대상 및 방법	27
제 2 절 한국어 교재별 언어 제시의 현황	29
1. 경희대 『한국어』	29
2. 고려대 『한국어』	31
3. 서강대 『서강 한국어』	32
4. 서울대 『한국어』	36
5. 성균관대 『배우기 쉬운 한국어』	38
6. 연세대 『연세 한국어』	39
7. 이화여대 『말이 트이는 한국어』	41
제 3 절 한국어 교재별 언어 제시의 특징	44

제 4 장	명사 중심의 연어 교육 연구	47
-------	-----------------------	----

제 1 절	명사 중심 연어 교육의 필요성	47
제 2 절	명사 중심 연어 교육을 위한 명사 추출	48
제 3 절	명사 중심 연어 관계의 단계화	51
제 4 절	명사 중심 연어 교육 방안	75
1.	명사 중심 연어 교육 방안의 모형 설계	76
2.	명사 중심 연어 교육 방안의 실제	79

제 5 장	결 론	86
-------	-----------	----

【참고문헌】	89
--------------	----

【부 록】	93
-------------	----

ABSTRACT	107
----------------	-----

【 표 목 차 】

<표 1> 연어의 정의	11
<표 2> 이희자(1995)의 연어 유형	13
<표 3> 강현화(1997)의 연어 유형	14
<표 4> 임홍빈(2002:295)의 연어 유형	15
<표 5> 문금현(2002:222~223)의 연어의 기준	15
<표 6> 한송화·강현화(2004:299)의 연어의 분류	16
<표 7> 한국어 교육 대상으로서의 연어의 분류	18
<표 8> 한국어 교재의 사용기관과 교재명	28
<표 9> 경희대 교재 『한국어』에 제시된 연어	29
<표 10> 고려대 교재 『한국어』에 제시된 연어	32
<표 11> 서강대 교재 『서강 한국어』에 제시된 연어	33
<표 12> 서울대 교재 『한국어』에 제시된 연어	36
<표 13> 성균관대 교재 『배우기 쉬운 한국어』에 제시된 연어	38
<표 14> 연세대 교재 『연세 한국어』에 제시된 연어	40
<표 15> 이화여대 교재 『말이 트이는 한국어』에 제시된 연어	42
<표 16> 각 교재의 연어 제시 양상	44
<표 17> 각 교재에 제시된 연어의 단계별 학습량	45
<표 18> 각 교재에 제시된 명사 연어핵	49
<표 19> 명사 연어핵 목록	51
<표 20> ‘눈(目)’의 연어 관계	53
<표 21> ‘눈(目)’의 학습 단계별 학습 내용	54
<표 22> ‘눈(雪)’의 연어 관계	55
<표 23> ‘눈(雪)’의 학습 단계별 학습 내용	56
<표 24> ‘돈’의 연어 관계	56
<표 25> ‘돈’의 학습 단계별 학습 내용	57
<표 26> ‘마음’의 연어 관계	58
<표 27> ‘마음’의 학습 단계별 학습 내용	59

<표 28> ‘말(言)’의 연어 관계	60
<표 29> ‘말(言)’의 학습 단계별 학습 내용	61
<표 30> ‘머리’의 연어 관계	62
<표 31> ‘머리’의 학습 단계별 학습 내용	63
<표 32> ‘몸’의 연어 관계	64
<표 33> ‘몸’의 학습 단계별 학습 내용	65
<표 34> ‘문제’의 연어 관계	66
<표 35> ‘문제’의 학습 단계별 학습 내용	66
<표 36> ‘불’의 연어 관계	67
<표 37> ‘불’의 학습 단계별 학습 내용	68
<표 38> ‘비’의 연어 관계	68
<표 39> ‘비’의 학습 단계별 학습 내용	69
<표 40> ‘시간’의 연어 관계	70
<표 41> ‘시간’의 학습 단계별 학습 내용	70
<표 42> ‘여유’의 연어 관계	71
<표 43> ‘여유’의 학습 단계별 학습 내용	71
<표 44> ‘음식’의 연어 관계	72
<표 45> ‘음식’의 학습 단계별 학습 내용	72
<표 46> ‘전화’의 연어 관계	73
<표 47> ‘전화’의 학습 단계별 학습 내용	73
<표 48> ‘힘’의 연어 관계	74
<표 49> ‘힘’의 학습 단계별 학습 내용	75
<표 50> OHE 교육 방법론	77

【 그 립 목 차 】

<그림 1> 연어의 범주	20
<그림 2> 연어 교육 방법	79
<그림 3> 명사 연어핵 ‘비’의 연어 의미망	80
<그림 4> 명사 연어핵 ‘비’의 연어 그림 카드	81
<그림 5> 명사를 중심으로 한 선 잇기 활동	82
<그림 6> 명사를 중심으로 한 단어 카드 연결하기 활동	82
<그림 7> 명사를 중심으로 한 연어쌍 찾기 활동	84
<그림 8> 명사를 중심으로 한 연어 노트 만들기의 예	84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한국어 교육의 목적은 한국어를 통해 의사소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있다.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계적인 암기 대신 실제 언어 사용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의사소통은 기본적으로 어휘에 의해 그 의미가 전달되므로, 어휘 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러 학자들은 언어 학습과 사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로 어휘 학습을 강조하였다.

70년대에 들어서 어휘와 문법을 개별적으로 보고 가르치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어휘를 덩어리, 연어로 본 어휘접근법(lexical approach)이 등장하였다. 어휘접근법에서는 의사소통능력이 문법, 기능, 의미 등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낱말과 낱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어휘의 연결 관계를 연어(collocation)¹⁾라 하는데 보통 둘 이상의 단어가 긴밀한 결합 관계를 형성하면서 출현 빈도가 높은 연결 현상을 말한다(문금현, 1998:220). 어휘접근법에서는 언어를 개별 어휘와 문법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는 뭉치로 보고, 어휘교육에 있어 연어 구조의 사용을 강조하였다. 연어라는 틀 안에서 문법과 어휘를 통합하는 어휘들의 덩어리가 학습자의 어휘능력뿐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Lewis, 2000:153).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의 어휘에 대해 충분히 학습해도 한국어 화자와 의사소통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결합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개별 어휘를 문장으로 실현시키는 방법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 하는 데 있다. 연어는 구성 요소가 습관적으로 결합하는 구절이기 때문

1) 연어는 학자에 따라 논의가 다양하다. 덩어리말의 대부분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으며, 덩어리말 중 특정한 결합 형태만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둘 이상의 개별 어휘가 긴밀한 결합 관계를 이루는 것을 이를 때 쓰인다.

에 습득에 어려움이 따르지만, 이에 대한 표현 능력이 곧 의사소통 능력의 잣대가 되는 중요한 학습 과제이다. 그러므로 연어에 대한 인지가 곧 어휘 능력의 척도가 되며 이에 대한 학습의 중요성도 그만큼 높다고 할 수 있다.

연어 학습은 학생들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외국인 학습자는 명사 ‘춤’을 사용할 때, ‘춤을 하다’와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고, 명사 ‘안경’을 의복에 대한 착탈어인 ‘입다’와 연결하여 ‘안경을 입다’와 같은 잘못된 문장을 생성할 수 있다. 이러한 연어는 언어 사용의 관습이 축적되어 나타나므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 학습자가 연어에 대한 지식을 별도로 학습하지 않으면 많은 오류를 생성할 수 있다. 한국어 화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한국어 연어 상황에 노출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러운 연어 지식을 습득하지만 외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어 화자와는 다르게 풍부한 연어를 습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실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좀 더 특별한 지도를 필요로 한다. 어휘 지도와 더불어 연어에 대한 지도도 함께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육에서는 문법 지도만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뿐 연어 교육에 대한 지도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원활하고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위한 연어 교육은 한국어 학습자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므로 연어 교육에 대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새로운 어휘를 학습할 때 학습자들에게 어휘의 연어적 지식까지 교수하여야 하는데 실제로 연어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업 시간에 사용되는 교재가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교재는 교수·학습의 매개체로 학습자가 언어를 배울 때 일차적으로 접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어휘 부분 중 연어 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교재는 연어 지식에 관한 다양한 내용과 용례가 담겨 있어 언어 학습을 충분히 이룰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목표는 효율적인 언어의 이해와 학습에 직접 연관된다 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연어를 분석하여 한국어 연어 교

육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연어 교육 방법을 명사를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어 학습자들은 연어 관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으며, 단어와 단어 간의 결합 관계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선행 연구 검토

연어 연구는 크게 국어학적인 연구와 외국어 교육적 연구로 나눌 수 있다.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는 연어를 연구 중심에 두지 않고 관용 표현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 여기거나, 사전 편찬을 위한 논의 중 하나로 언급되기도 하는 등 큰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최근에 와서 연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국어학적 관점에서는 연어의 개념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한국어 교육적 관점에서는 한국어 연어 사전 편찬과 관련된 연구와 연어 오류 수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한국어 교재와 연어 교수 방안과의 연관성을 밝힌 연구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또 연어를 어휘 지도에 활용한 사례도 국어 교육이나 한국어 교육보다는 외국어 교육 중 특히 영어 교육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연어를 국어학적인 입장에서 다룬 국내 논문을 살펴보도록 한다. 국어학적 연구에서는 관용 표현과 구분해야 하는 범주로 연어를 설정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연어 연구가 시작되었다.

국어학적인 관점에서 연어를 다루고 있는 논문으로는 임지룡(1992), 이희자(1995), 강현화(1997), 김진혜(2000), 임홍빈(2002) 등이 있다.

임지룡(1992)에서는 연어를 관용어와 구분하여 상호의존적 기대치를 갖는 낱말의 결합 관계로 보고 이 결합 관계는 관용어처럼 고정되고 폐쇄된 것이 아니라, 공존의 여지가 한층 개방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희자(1995)에서는 국어의 어휘를 풍부하게 하는 어절들의 결합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나타내는 어절결합을 보이는 것, 그리고 형태적으로나 통사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되어 있는 어절들의 쓰임에 대한 세심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통일된 용어가 없이 일괄적으로 속어 또는 관용어로만 파악하여 오던 것을 속어, 연어, 관용어로 하위 분류하고 개념 정립 및 특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연어를 발생 요인에 따라 ‘형태적 연어’와 ‘통사적 연어’, ‘의미적 연어’로 나누었다. 연어와 관용어를 구분하고 연어의 전체적인 유형을 설정했으며 체계적으로 유형을 분류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이다.

강현화(1997)에서는 속어, 연어, 관용어의 경우가 통사적 특성은 달리 하지만 경계를 정하기가 쉽지 않음을 들며 이를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즉 속어와 연어를 구분하지 않고 공기(共起)하는 어휘 간에 단계성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연어를 상위 개념으로 보았다. 연어 구성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체언+용언’형 연어 구성의 다양한 유형과 유형 간에 나타나는 단계성을 고찰하고 있다.

김진해(2000)는 언어학적 측면에서 관용어와 분리하여 연어만을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다룬 최초의 논의이다. 선행 연구 정리를 통해, 연어 범주의 개념을 정의하고, 구성방식과 생성 원인에 따라 연어 범주를 하위 분류하였다. 연어의 특징을 심리적 현저성이 높다는 것, 특정 의미를 구현한다는 것, 구조 변형에 제약이 따른다는 것, 특정 언어 집단에 의존적이라는 것으로 정리하고 연어의 유형을 어휘적 연어와 형태·통사적 연어로 분류하였다.²⁾

임흥빈(2002)에서는 연어를 자유 결합 관계로 살펴본 다른 연구와 비교 분석하여 연어 범주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통사·의미적 성격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설명이 가능한 공기 관계를 이룬 결합 관계

2) 어휘적 연어와 형태·통사적 연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 | |
|-----------------------------------|----------------|
| (1) ㄱ. {똥/오줌}이 마렵다, 눈을 뜨다, 입을 다물다 | - 용언에 의한 연어 |
| 갈기갈기 찢다, 시름시름 앓다 | - 부사에 의한 연어 |
| ㄴ. 전철을 밟다, 염두에 두다, 기업을 토하다 | - 체언에 의한 연어 |
| 불티나게 팔리다, 새빨간 거짓말, 열광의 도가니 | - 수식어에 의한 연어 |
| (2) ㄷ. 단지~르 뿐이다, 왜냐하면 ~기 때문이다 | - 부사에 의한 연어 |
| -(느)ㄴ 김에, -는 바람에 / ~에 따라서 | - 의존명사에 의한 연어 |
| ~라고 타이르다, ~도 무방하다 | - 보문 동사에 의한 연어 |

(1)은 내용어 끼리의 결합으로 어휘적 연어, (2)는 내용어와 기능어가 결합된 형태·통사적 연어이다. (1ㄱ)은 전제적 연어이며 (2ㄴ)은 관습적 연어이다. 전제적 연어는 용언이 선택어가 되고, 관습적 연어는 체언이 선택어가 된다.

를 자유 결합이라고 하고, 설명이 잘 되지 않거나 어려운 공기 관계를 형성하는 결합 관계를 비자유 결합 혹은 제한 결합이라고 정의하였다. 비자유 결합 안에 관용어와 연어³⁾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국어학에서는 관용표현에서 벗어나 연어가 중심이 된 연구와 연어의 유형을 분류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한국어 교육에서는 국어학에서 논의된 연어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바탕으로 연어를 실제 교육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어휘 교육에서의 연어 활용 방안, 연어 교수·학습 방안뿐 아니라 최근에는 오류 분석을 통한 실증적인 연구가 다수 발표되고 있다.

문금현(2002)에서는 관용 표현이나 연어는 구성 요소들이 습관적으로 공기하는 구이기 때문에 습득에는 어려움이 따르나, 이에 대한 표현 능력이 의사소통 능력의 잣대가 되는 중요한 학습 과제라고 하였다.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연어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한국어 교육에서 연어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논의하였다. 이는 국어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국어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에서의 연어 교육을 연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국어 교재에 나타나 있는 연어를 분석하고, 여러 문어 자료 및 구어 자료를 분석해서 초·중·고급의 연어 학습 목록을 제시하였다.⁴⁾ 또한 초·중·고급별로 학습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의성·의태어에 대한 교육을 연어를 통해서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강현화·한송화(2004)에서 한국어 학습자들의 오류를 통해 한국어 교육에서 연어의 중요성과 연어를 한국어 교육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연어를 수업활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선할

3) ‘시계를 차다’에서와 같이 ‘시계’가 왜 ‘차다’를 선택하는지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를 연어라고 보았다.

4) 문금현(2002)에서는 한국어 교재 중 서울대학교, 전문대학교, 연세대학교와 시, 소설, 수필, 신문, 사진 등의 문어 자료 그리고 방송 드라마 대본, 토크쇼 등의 문어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을 출현 빈도에 따라 급별로 나누어 연어 목록을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한국어 교재와 함께 문어자료 및 구어자료를 분석하여 연어 학습 목록을 선정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문어자료와 구어자료 선정에 있어 그 기준이 정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초·중·고급별로 연어 학습 목록이 제시되어 있지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관점에서 볼 때 활용할 수 있는 난이도가 고려되어 있지 않았다.

점을 몇 가지 들고 있다. 그 첫 번째는 각 개별 어휘의 연어 관계가 밝혀져야 하고, 두 번째는 연어 사전이 편찬되어야 하며, 세 번째는 한국어 교사가 이용할 수 있는 표준 말뭉치가 구축되고 공개되어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주목해야 할 연어 관계가 밝혀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 말뭉치를 통한 어휘 오류 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논의하고 있다.

박숙영(2005)은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연어가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으며 연어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 및 대상 연어를 선정하여 학습 단계별 목록을 제시하였다. 간단하면서도 생활에 유용한 연어를 초급 단계로 설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미적으로 관련된 연어를 통해 어휘 확장을 할 수 있는 단계를 중급으로 설정하였다. 고급 단계에서는 상하 관계에 있는 연어나 같은 어휘장(語彙場)에 속하는 것들을 연어장(連語場)으로 묶어서 연어 구성의 확장을 교수·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혜숙(2008)에서는 한국어 교육의 대상으로서 연어의 개념을 ‘그 의미의 이해와 표현을 위해 하나의 어근으로 인식해야 하는 두 단어 이상의 결합’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그 범주에 연어와 관용어 그리고 형태·통사적 연어를 모두 포함시키되,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여 은유적 의미를 지니는 결합 관계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화여대 및 서울대의 한국어 교재와 외국인을 위한 독일어 교재를 대상으로 연어 선정의 적절성 및 연어 제시의 적절성, 학습한 연어의 활용 및 확장을 위한 연습 과제의 제시 여부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어 교육을 위한 연어 목록의 선정과 한국어 교재의 연어 제시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선 연어 목록 선정에 관해서 한국어 모어 화자들의 말뭉치 중 출현 빈도가 높은 연어 목록만을 뽑아, 그중 중심이 되는 구성 요소가 ‘한국어 학습용 어휘’에 해당되는 연어 관계를 추려 한국어 학습 목표 연어 목록을 선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신지영(2008)에서는 그동안의 연어 교육 연구의 대상이 ‘체언+용언’형 연어에만 한정되어 진행되어 온 것을 감안해 볼 때 중·고급 학습자들이 유창하고 자연스러운 한국어 사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사류+용언’형 연

어 교육의 필요성을 논하고 그 항목을 정리하여 등급을 설정하였다. 또한 304개에 이르는 항목들을 교수 항목과의 상관성, 사용 빈도, 어휘의 정보량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위계를 정리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상 연어에 관한 국어학적 연구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적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이 밖에 외국어 교육의 분야 중 영어 교육에서는 연어 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코퍼스(corpus)에 기반을 둔 연어 연구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이영미, 2005; 김보영 2008), 연어 오류 분석에 관한 연구(양수향, 2005; 송영주, 2008), 연어를 활용한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가 있다(김명호, 2004; 박현주 2008).

연어 관련 연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한국어 발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기 위해 연어를 사용하여 더 다양한 사고를 표현하고자 하는 학습자들이 늘어난 것을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결합 방식에서 분명한 제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시적인 제시를 통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목록을 수집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한국어 교재를 기준으로 연어에 대해 살펴 본 논문은 박숙영(2005), 박현정(2007), 박혜숙(2008), 이민성(2008)등이 있는데 이들 연구는 한국어 교재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다. 기존의 연구는 초급부터 고급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제시된 연어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국내 한국어 교육 기관의 교재 중 한 두 교재만 분석한 연구이다. 그래서 포괄적이고 세부적으로 연어의 교육 현황을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의 한국어 교재를 선정하여, 각 교재의 모든 단계에서 명사를 중심으로 한 연어가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명사 중심의 연어 교육의 효율성을 근거로 하여 명사 중심 연어의 목록과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겠다.

제 3 절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재에 공통으로 제시되는, 연어가 결합하는 명사 연어핵을 추출한 후 한국인 학습자의 사용이나 사전의 용례를 바탕으로 연어 학습 자료의 근거를 제시하여 다양한 연어의 학습 순서를 결정하고자 한다. 또 효과적인 연어 교수 방법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연어 교육 현황에 대해 살피기 위해 교재에 제시된 연어를 통해 특징을 살폈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 한국어 교육기관인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의 교재를 연구 대상으로 정하였다.

둘째,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연어를 토대로 명사 연어핵을 추출하였다. 총 426개의 명사 연어핵 중 출현빈도 5이상의 명사로 한정하여 15개의 분석 대상 어휘를 선정하였다.

셋째, 선정된 명사 연어핵의 연어 관계를 살피보기 위해 『한국어 연어사전』(2007), 『표준국어대사전』(1999), 『한국어 교육 기초 어휘 빈도 사전』(2000)의 용례를 이용하도록 하겠다. 이는 현행 한국어 교재에서 다루는 연어만으로는 전체적인 한국어 연어에 대해 살피는 데에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재에는 명사 연어핵이 제시되더라도 난이도와 무관하게 제시된 경우도 있고, 일반적인 연어 형태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의 자료를 참고하여 실제적인 연어 목록을 제시하고자 한다.

넷째, 위의 세 번째 단계에서 완성된 명사 중심의 연어 목록을 이용해 교육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교육 방안에서는 명사 중심 연어 교육을 위한 교육방안의 실재를 보여주도록 하겠다.

이 연구는 한국어 교육에서 연어 교육의 필요성을 밝히고 명사 중심의 연어 목록을 선정하며 이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들에게 효과적인 한국어 어휘 학습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별 한국어 교재를 토대로 한국어 연어 교육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다양한 연어 정보를 제공하는지 살펴본다.

둘째, 공통으로 추출된 연어의 명사 연어핵를 중심으로 확장된 연어 관계가 가능한지 알아본다.

셋째, 명사를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연어 교수 학습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연구에 앞서 이론적 배경으로 어휘중심 접근법과 함께 연어의 정의, 연어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제 3장에서는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연어를 검토하여 목록을 제시한다. 제 4장에서는 명사를 중심으로 한 연어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각 기관별 교재에서 추출된 연어를 토대로 학습해야 할 명사 목록을 선정하고 교재 이외의 자료를 바탕으로 명사 중심의 연어 관계에 대해 정리하고 이를 목록화하여 제시한 후 명사를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연어 교육 방법을 제안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언어의 개념과 범위

1. 언어의 정의

이 장에서는 언어에 대한 기존의 개념을 정리한 후, 이를 바탕으로 언어의 범위를 한정하여 본 논문에서 반영하고자 하는 언어의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언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학자 간에 이견이 많다.⁵⁾

국내에서 ‘언어(collocation)’라는 용어는 최현배(1929)에서 최초로 정의된다. 최현배(1929:744)에서는 “여러 낱말이 모여서 한 겹진 뜻을 나타내되, 아직 온전한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 되지 못한 것, 곧 월은 물론이요, 아직 마디도 되지 못한 것을 이은말(連語)”이라고 하였다. 이곳에서의 이은말, 곧 언어는 문장도 되지 못하고, 절도 되지 못한 구로 정의하였다. 그 이후 본격적으로 언어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90년대로 관용어와 구분해야 하는 범주로 언어를 설정하였다.

국외에서는 영국의 언어학자 Firth(1957:181)에 의해 “언어는 단어가 결합하여 어구나 문장을 형성하면서 그 결합관계가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자주 일어나는 것이다(Collocation is the habitual juxtaposition or association in the sentences of language)”라고 정의 되었으나 그 후 학자들에 따라 그 개념 정의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어학 분야에서 언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이희자(1995), 김진해(2000), 임홍빈(2002), 임근석(2006) 등이 있다. 국어학에서의 연구는 언어의 본질적인 특징이나 개념, 범위 등에 대해 논의한 것이 주를 이룬다.

5) 언어에 대한 학자 간의 이견이 많은 이유에 대해 김진해(2000:14)는 “언어를 그저 일반 자유 결합과 관용어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개념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으며, 이는 “언어에 포함되는 예들의 성격이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관용어처럼 하나의 의미 단위를 형성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는 문금현(2002), 한송화·강현화(2004), 이승연·최은지(2007) 등의 연구를 통해 연어를 활용한 어휘 교육 방안이 꾸준히 모색되어 왔다.

국내 연구에서 정의한 연어의 개념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연어의 정의

	정 의
이희자 (1995)	① 의미적 연어 : 구성요소들이 그의 의미의 합으로 일정한 뜻을 전달하기는 하지만, 결국 그 요소들의 전의에 기초하여 습관적으로 굳어져서 쓰이게 된 것. ② 통사적 연어 : 관용적인 어절의 결합이 통사적인 요인으로 인한 것. ③ 형태적 연어 : 통사나 의미 현상으로서가 아닌, 고정된 어휘 꼴이나 혹은 극히 제한된 활용꼴로 나타나는 어휘론적인 현상으로서 설명되는 어절들의 관계
문금현 (1998)	구성 요소들의 의미가 다의화를 거치지 않아 축자 의미를 그대로 드러내긴 하지만, 습관적으로 공기(共起)하는 것.
이동혁 (1998)	특수한 단어끼리의 관습적인 긴밀한 구 결합체이면서, 연어의 구성 단위 중 적어도 하나의 단어가 기본 의미가 아닌 비유적 의미로 쓰인 것.
김진해 (2000)	특정 어휘가 다른 어휘를 요구함으로 발생하는 어휘소들간의 제한적 공기 관계.
임홍빈 (2002)	연어 관계에 있는 어휘소가 문법적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을 이룬 것.
문금현 (2002)	둘 이상의 단어가 축자의미 ⁶⁾ 를 유지하면서 긴밀한 결합 관계를 형성하는 어군으로 출현 빈도 ⁷⁾ 가 높고 심리적인 현저성이 높음.
한송화 · 강현화 (2004)	함께 나타나는 단어들의 결합 혹은 통계적으로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더욱 많은 어휘들의 결합으로서, 말뭉치 상에서 높은 빈도로 결합하는 구를 포함하여 모어 화자가 특별한 결합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학습자가 오류를 양산해 내거나 스스로 텍스트에서 유용한 연어라고 선택하는 것들.
임근석	연어는 어휘요소 상호 간 또는 어휘요소와 문법요소 간의 긴밀

(2006)	한 통사적 결합구성으로, 선택의 주체(언어행)가 되는 어휘요소나 선택의 대상이 되는 어휘요소나 문법요소(언어변)를 제약적으로 선택한 구성.
이승연 · 최은지 (2007)	특정 맥락에서 하나의 어휘적 요소가 이어지는 어휘를 선택하는 관계이며, 두 어휘가 통사적·의미적 결합 관계이면서 어휘적 선택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위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언어는 ‘두 구성 요소가 긴밀한 결합 관계를 가지며, 전형적으로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되고, 관용어와 자유 결합 사이에 존재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또한 연구자들이 언급한 ‘결합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그 출현 빈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휘교육에서 언어 교육이 필요함을 뜻하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어에서 언어는 그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며 논자들마다 다양한 견해를 펼치고 있다. 사용 목적에 따라 정의가 달라지므로 본고에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관점에서 ‘긴밀한 공기 관계를 보이는 두 개의 어휘 요소간의 제한된 결합’을 언어의 정의로 삼고자 한다.⁸⁾

2. 언어의 유형

언어 개념에 대한 정의만큼 언어의 유형에 대한 분류도 학자들마다 다양하다. 이 장에서는 언어 구성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의 의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언어에 관한 다양한 국어학적 논의를 정리하여 한국어 언어의 개념과 통사·의미적 성격을 규명하려는 시도로는 먼저 이희자(1995), 강현화

6) 논자에 따라 기본의미라고도 한다.

7) 김진해(2000)는 출현빈도에 대해 고빈도의 모든 용례가 의미 있는 언어 정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홍종선 외(2000)가 대규모 말뭉치를 토대로 언어 정보를 통계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나 어떤 대상어(node)와 함께 하나의 문장에 자주 등장하는 모든 어휘에 대하여 언어성을 인정함으로써 대상어 ‘사람’은 ‘많은’, ‘마을’, ‘두’, ‘아무도’, 대상어 ‘말하다’는 ‘다시’, ‘이렇게’, ‘것이라고’, ‘있다고’ 등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들고 있다.

8) 긴밀한 공기 관계를 보인다는 것은 결합 가능성이 높아 자주 함께 쓰인다는 의미이고 제한된 결합은 자유 결합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명사를 언어행으로 하여 제한된 동사 선택을 한다는 의미이다.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 장을 참고한다.

(1997), 김진해(2000), 임홍빈(2002)을 들 수 있다. 이희자(1995:414)는 관용 표현⁹⁾을 보이는 것들을 형태상으로 분류하여 구 차원에서 이를 때 ‘관용구’라 하였다. 관용구를 크게 숙어와 연어로 나누고, 연어를 생겨난 요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미적 연어, 통사적 연어, 형태적 연어로 구분하였다.

<표 2> 이희자(1995)의 연어 유형

유형	정의		예
의미적 연어	구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 그의 의미의 합으로 일정한 뜻을 전달하기는 하지만, 결국 그 요소들의 전의에 기초하여 습관적으로 굳어져서 쓰이게 된 것		뒤가 꼴리다, 애가 서다, 입이 무겁다
통사적 연어	관용적인 어절의 통사적인 요인으로 인한 것	용언 선택 제약	입을 다물다, 눈을 감다
		체언 선택 제약	물구나무를 서다
		부사어 선택 제약	코가 삐뚤어지게
		통사적 공기 관계	결코 -(으)ㄴ 수 없다
형태적 연어	통사나 의미 현상으로서가 아닌, 고정된 어휘 꼴이나 혹은 극히 제한된 활용 꼴로 나타나는 어휘론적인 현상으로서 설명되는 어절들의 관계		-에 대한, -ㄴ가 보다

<표 2>의 유형 구분은 의미적 연어와 통사적 연어간의 구분이 불명확하며, 통사적 연어와 형태적 연어를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유형 분류의 한계가 보인다. 위 표에서 제시한 연어 유형의 개념을 볼 때 통사적 연어는 특정 용언의 성질에 의해 목적어나 주어로서 특정한 어떤 것만을 선택한다고 하였다. 예로 든 ‘입술을 다물다’를 살펴보면 용언 ‘다물다’의 특성상 ‘입’만을 목적어로 취한다는 통사적 연어의 개념 정의가 있는데 이는 ‘입술’을 그 목적으로 취하기도 하여 ‘두 쪽으로 마주 보는 물

9) 관용 표현은 ‘어떻게 오셨어요’, ‘이게 웬 떡이냐’와 같은 유형이나 ‘낫 놓고 기역자도 몰라요’와 같은 속담의 표현이다. 이것을 자유롭게 못한 어절의 결합 구조를 보이는 것들을 그 내용상이나 형태상의 분류를 떠나 ‘습관적인 말의 사용’에서 야기된 현상으로 보고 있는데 이들의 상위 개념으로 ‘관용 표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관용 표현’이란 넓은 의미에서 습관적인 말의 사용에서 야기된 어절들의 의미·통사·형태적인 결합 관계에 있는 말들을 이른다.

건'을 목적어로 취한다고 하여야 합당할 것이다.

강현화(1997:193)는 기존 연구는 연어 정의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속어와 연어를 분리하지 않고 연어를 상위 개념으로 보아 긴밀하게 공기하는 모든 '체인+용언' 구성을 연어로 보았다. 연어의 유형을 해당 체언이나 용언의 의미적인 전이성 여부와 제약성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유형화하였다.

<표 3> 강현화(1997)의 연어 유형¹⁰⁾

유형	정의	예
a+B	체인으로서의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지 못하며 특정 용언과만 공기하는 구성	전철을 밟다, 애를 쓰다, 골탕을 먹다
	체언에 약간의 독립적 쓰임이 있으나 특정 용언과 공기하는 구성	제비를 뽑다, 영문을 모르다, 엄두를 내다
a'+B	체언이 비유적으로 쓰인 구성	속이 보이다, 뒤를 캐다
A+b'	용언이 비유적으로 쓰인 구성	목이 잠기다, 머리를 식히다
A+b'	용언의 의미가 약화되어 체언과 긴밀한 관계를 보이는 구성	사기를 치다, 말썽을 부리다
A+B	의미 원소가 같은 동사류의 선택 제약에 의해 연어를 이루는 구성	개가 짖다, 피아노를 치다, 모자를 쓰다
	독립된 체언이 특정 동사와 높은 빈도로 쓰인 구성	녹이 슬다, 마음을 비우다
	동족목적어 구문	춤을 추다, 잠을 자다
a+b	체인과 용언이 모두 제약된 쓰임을 가지는 구성	끝장이 나다, 트집을 잡다
	제약된 체언이 의미가 약화된 용언과 이루는 구성	난리를 치다, 엄살을 부리다
	체인과 용언의 구 전체가 비유적으로 쓰인 구성	열이 나다, 옷을 벗다
	속어 구성	미역국을 먹다, 파리를 날리다
a'+b'	체인과 용언 각각이 비유적으로 쓰인 구성	입이 무겁다, 손을 타다

10) 위의 유형에서 소문자의 의미는 해당 체언이나 용언의 쓰임의 제약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a', b' 붙은 비유적 의미로 쓰였음을 뜻한다.

그러나 이상의 유형 분류는 연어의 다양한 구성 방식과 생성 원인을 중심으로 분류하지 못했으며 전체 연어 구성을 대상으로 살핀 것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임홍빈(2002:279)에서는 연어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문법적 구성에 나타나는 두 어휘소 사이의 어휘적인 선택 관계로 규정하였다. 연어의 구성요소를 연어핵과 연어변으로 나누고, 이 둘의 선택 관계가 일반적인 의미 선택과 다르다고 주장하였으며, 피동이나 사동, 연어핵의 대명사화를 통하여 연어의 전반적인 통사적 양상을 살폈다. 임홍빈은 연어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표 4> 임홍빈(2002:295)의 연어 유형

N_V(명사 + 동사)	겁을 먹다, 물의를 빚다, 눈을 뜨다.
N_A(명사 + 형용사)	썸썸이가 헤프다
ADV_V(부사/부사어 + 동사)	까르르 웃다, 눈이 빠지게 기다리다
ADV_A(부사/부사어 + 형용사)	지끈지끈 아프다, 아득히 멀다
N의_N(명사 + 속격 조사 + 명사)	절망의 구렁텅이, 각고의 노력

문금현(2002)은 연어를 의미적인 결합에 의해서 공기 관계가 형성된 어휘적 연어와 문법적인 결합에 의해서 공기 관계가 형성된 문법적 연어로 구분하였다. 어휘적 연어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와 같은 내용어들끼리 긴밀한 공기 관계를 형성하는 구성을 말한다. 이를 한국어 교육에 맞춰 통사적인 기준에 의해 삼분하였다. 어휘적 연어의 어절 결합이 어휘적인 이유에 의한 것이라면, 문법적 연어의 어절 결합은 통사적인 요인에 인한 것이다. 위 논문의 유형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문금현(2002:222~223)의 연어의 기준

어휘적 연어	주술관계 연어	구역질이 나다/군침이 돌다/나이가 들다/눈이 부시다/똥이 마렵다/배가 고프다
	목술관계 연어	김을 매다/먹을 감다/몸부림을 치다/물구나무를 서다/방귀를 뀌다/손뼉을 치다

	수식관계 언어	[체언+관형격조사+체언]형	간발의 차/우연의 일치/ 한치의 오차
		[부사+용언]형	깜빡 있다/깜짝 놀라다
		[부사어+용언]형	감기에 걸리다/병에 걸 리다
		[용언+관형형어미+체언]형	감칠 맛/막다른 골목/왕 성한 식욕
문법적 언어	결코 ~르수 없다, 단지 ~르 뿐이다, 만약에 ~면, ~는 바람에, ~에도 불구하고		

문금현(2002)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의 특성을 감안하여 세분화 된 유형 분류를 지양하고 어휘적 언어를 통사적인 기준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러한 간단한 유형 분류는 언어 학습을 위한 패턴 정보를 위해서 적합하다.

한송화·강현화(2004:299)에서 언어를 ‘함께 나타나는 단어들의 결합 혹은 통계적으로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더욱 많은 어휘들의 결합’으로 보았다. 또 말뭉치 상에서 높은 빈도로 결합하는 구뿐만 아니라, 모어 화자가 특별한 결합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학습자가 오류를 양산해 내거나 스스로 텍스트에서 유용한 언어라고 선택하는 것들도 그 대상으로 여겨 다음과 같이 언어를 분류하였다.

<표 6> 한송화·강현화(2004:299)의 언어의 분류

비교적 고정되어 있고 거의 변화가 허용되지 않는 표현인 관용구나 은유적 표현, 구동사(phrasal verbs)	미역국을 먹다, 새빨간 거짓말
함께 나타나는 것이 어휘의 의미 자질 등으로 자연스럽게 예측되지 않는 어휘간의 결합	무거운: 짐, 책가방, 물건…… (예측 가능) 무거운: 책임, 부담, 죄, 몸, 공기…… (예측 불가능)
빈도가 높은 어휘 결합	높은 파도, 높은 구두, 빨간 장미, 빨간 불
명사를 중심으로 한 언어 구조	시험 + 보다, 붙다, 합격하다, 떨어지다

기존의 연어 영역보다 좀 더 확장된 연어 영역	시험 + 있다, 망치다, (안) 나오다
품사와 관계없이 선행과 후행의 연어 정보	수능 시험, 입학 시험 / 시험 성적, 시험 문제
세 단어 이상의 결합	시험을 완전히 망치는, 시험을 잘 보면
추상적 어휘의 연어	별, 아무 + 생각, 황당한, 좋은 + 생각
맥락을 고려한 연어 구조	‘시험을 치르다, 시험을 보다’의 차이
학습자 오류를 중심으로 한 연어 구조	서명을 쓰다, 해가 나간다

학습자는 연어를 통해서 단순한 어휘 수의 수적 증가뿐 아니라, 연어 습득 과정에서 다의어의 다양한 의미를 인지한다. 연어 학습을 통해 동일한 어휘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그 어휘의 다양한 연어 구조를 알게 되어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어휘의 주변 의미는 결합되는 어휘와 한 덩어리로 쓰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휘를 더 많이 알게 된다는 것은 의미를 알고 있는 어휘가 증가한다는 것 외에도 어휘의 다양한 연어 구조를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송화·강현화(2004)에서 제시된 연어 교육의 대상이 되는 실제적인 범주 설정과 그에 따른 학습 단계별 연어 목록의 선정에 관한 확장된 논의는 한국어 교육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그 범주 설정의 근거와 실효성에 관한 좀 더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한국어에서 연어는 그 정의나 범주가 명확하지 않으나 기존 연구에서의 유형 구분은 크게 어휘적 연어와 형태적 연어로 나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연어의 개념 및 유형 구분을 폭넓게 적용한 문금현(2002)의 연어 유형 구분에서 ‘어휘적 연어’에 해당하는 것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문법적 연어를 연구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본 연구가 명사 중심의 연어를 연구함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또 ‘체언+용언’형의 연어 중 품사와 관련하여 연어핵과 연어변으로 연어의 구성요소를 나눈 임홍빈(2002)의 연어 유형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연어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표 7> 한국어 교육 대상으로서의 연어의 분류

[N+V]	주술관계	배탈이 나다, 고집이 세다
	목술관계	기타를 치다, 노래를 부르다
	수식관계	마음에 들다, 대회에 나가다
[Adj+N]	수식관계	막다른 골목, 새빨간 거짓말
[Adv+A]	수식관계	아득히 멀다
[N의+N]	수식관계	우연의 일치, 절망의 구렁텅이
[N+N]	수식관계	유령 회사

위의 연어 유형 중 본고에서는 명사를 연어핵으로 하여 용언과 결합하는 [N+V]만을 연구 대상으로 보았다. 이 유형은 한국어 일반 말뭉치와 학습자 말뭉치에서 가장 빈번하게 드러나는 유형이기 때문에 연어 목록을 제시하였을 때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다.

3. 한국어 교육에서의 연어 범주

연어의 정의를 명백하게 내리는 것은 어렵지만 연어의 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구체적인 연어의 범주를 제한하고자 한다.

- (1) 가. 밥을 먹다
나. 학교에 가다
- (2) 가. 비행기를 태우다
나. 미역국을 먹다
- (3) 가. 속이 타다
나. 더위를 먹다
- (4) 가. 시계를 차다
나. 가위에 눌리다

이희자(1995)에서는 (2가, 나)만을 속어로 본다. (3가, 나)는 연어 중 의미적 연어에 분류하였으며, (4가, 나)는 통사적 연어에 속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김진해(2000:63)에서는 (4가)와 같은 ‘착탈어’와 ‘바이올린을 켜다’와 같은 ‘연주어’ 등을 실제로 결합 범위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유 결합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고 연어의 범주에서 제외시켰다. 반면 임홍빈(2002:281)에서는 (4가)만을 연어로 보고 있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화자는 ‘시계를 차다’는 표현을 인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용하지만 왜 ‘시계’가 ‘차다’를 선택하는지는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이처럼 설명이 잘 되지 않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공기 관계를 형성하는 요소들로 이루어진 표현을 연어로 설정한다.

또 문금현(2002:219)¹¹⁾에서는 연어를 $A+B=AB$ 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설정하여 (3나)를 $A+Bb=ABb$ 형인 상용구절(常用句節)로 보았지만 강현화(1997:197)에서는 $A+b'$ 구성으로 용언이 비유적으로 쓰인 연어로 보았다. ‘더위를 먹다’는 여름철에 더위 때문에 몸에 이상 증세가 생기는 것으로 ‘더위’라는 명사에서 의미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비유적으로 쓰인 연어로 보는 강현화(1997)의 논의가 타당하다고 본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의 연어의 범주를 설정하기 위해 단어의 결합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5) 밥을 먹다

(6) 욕을 먹다

11) 문금현(2002)은 연어를 일반구절과 관용구절의 중간자로 간주하여 일반구절이나 관용 표현(idiomatic expression)과의 비교를 통해 연어의 개념과 기준을 제시하였다. 관용구절은 두 구성 요소가 의미의 전이를 겪어 제3의 의미를 갖게 된 것이고 두 요소 중의 한 요소만 의미의 전이를 겪은 것은 상용구절로 분리하였다. 이에 비해 연어는 표면상의 축자 의미가 그대로 쓰이고 공기 관계의 결속력이 강하여 두 구성 요소 사이가 더 밀착되어 있어 일반 구절과는 다르다. 이들의 차이점은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관용구절	상용구절	연어	일반구절
의미의 구조	$A+B=C$	$Aa+B=AaB$ $A+Bb=AbB$	$A+B=AB$	$A+B=AB$
의미의 투명성 (유추 가능성)	불투명	반투명	투명	투명
비유성 여부	유	유무	무	무
분석 가능성	불가능	가능	가능	가능
구성 요소의 대치	제약	반제약	반제약	자유 대치
통사적 제약	강	약	무	무

(7) 미역국을 먹다

(7)의 ‘밥을 먹다’는 기본 의미끼리의 결합으로써, 구성 요소의 ‘밥’ 대신 ‘국, 반찬’ 등으로 대치가 자유롭다. 이와 같이 공기 관계를 형성하면서 어느 정도 대치가 자유로운 것을 자유 결합이라고 한다. 자유 결합은 ‘밥’과 ‘먹다’의 기본 의미는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로 결합한다.

(6)의 ‘욕을 먹다’에서는 ‘먹다’가 ‘욕’과 결합하면서 ‘먹다’라는 기본 의미가 ‘듣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명사 ‘욕’은 원래 의미를 유지하면서 ‘먹다’라는 동사만 변화하였는데, 이러한 경우를 연어로 본다.

반면 (7)의 ‘미역국을 먹다’의 경우는 중의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미역국을 먹다’라는 글자 그대로의 기본적인 의미만을 나타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험에 떨어지다, 낙방하다’라는 제3의 의미로 전이한 것이다. 첫 번째의 경우 자유 결합으로 보고 두 번째의 경우를 관용어라 한다. 관용어는 ‘미역국을 먹다’와 같이 결합되어 있을 때 ‘시험에 떨어지다’의 의미가 되며, 이를 ‘미역국을’과 ‘먹다’로 나누면 그 의미를 상실하고 기본 의미가 된다.

이동혁(1998:21)은 연어를 관용어의 특성과 자유 결합의 특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연어는 자유 결합이나 관용어에 완전히 속하지 않는 중간적 범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논의를 받아들여 연어 구성이 일반 자유 결합 구성과 관용어와 구분되는 중간적 범주에 위치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연어의 범주를 제시한다.

<그림 1> 연어의 범주

자유 결합 (Free Combination)	연어(Collocations)	관용어 (Idioms)
밥을 먹다	욕을 먹다	미역국을 먹다

이처럼 단어의 결합은 자유 결합에서부터 연어, 관용어의 분포로 나타난

다. 이러한 단어의 결합은 연결 관계에 따라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강도가 강해지는 모습을 보인다.

개별 어휘의 결합 강도와 정도성에 따라 유연한 사고가 필요할 것이며 학문적 관점에 따라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언어의 범주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위의 그림에서 언어를 볼 때, 왼쪽 극단으로 갈수록 어휘 결합의 범위가 가장 넓은 자유 결합이고, 반대의 극단으로 갈수록 어휘의 결합 범위가 고정되고 결합의 강도가 강한 관용어이다. 본고가 언어 교수·학습 관점에서 논의하는 언어는 자유 결합과 관용어를 제외한 중간 영역에 위치한 언어이다. 관용어와 언어의 범주를 어떻게 구분 짓느냐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그 경계가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관용어와 언어는 모두 문법화된 어휘 구조를 지니고 있고 전형적으로 함께 나타나는 어휘 덩어리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언어는 구성소들의 의미가 반영되어 있는 반면 관용어 그 구성소들만으로는 내포된 의미를 유추하기 힘들다. 때문에 교육에서 관용어는 고정된 어휘 덩어리로 어휘의 확장성의 측면에서는 언어와 차이점을 보인다.

다른 관점에서 언어핵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언어의 범주 설정이 달라진다. A+B의 구성에서 언어핵을 무엇으로 보는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김진해(2000)에서는 ‘체인+용언’ 구성에서 체언이 언어핵인 경우도 있고 용언이 언어핵인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임홍빈(2002)에서는 ‘체인+용언’ 구성에서 체언이 항상 언어핵이 된다고 보고 있다.

(8) 개가 짚다

(9) ㄱ. 욱을 먹다

ㄴ. 전철을 밟다

김진해(2000)에서는 (8)의 경우는 용언 ‘짚다’가 언어핵이고 (9)의 경우 체언 ‘욱’과 ‘전철’이 언어핵이라고 보았다. (9ㄱ)과 (9ㄴ)에서 ‘욱’을 의미적으로 투명하다고¹²⁾ 보고 ‘전철’을 불투명한 것으로 본 것이다.¹³⁾ 그런데 임

12) ‘의미가 투명하다’는 것은 언어를 이루는 두 개의 구성 요소 모두가 축자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뜻이다. 임근석(2003)은 어휘적 언어가 의미적으로 투명하거나 반투명하다고 밝히면서 의미적

홍빈(2002)에서는 (8), (9)의 경우 모두 체언을 연어핵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연어의 연어핵의 의미는 항상 투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따라서 (8)과 (9ㄱ)은 연어의 범주에 포함하지만, (9ㄴ)은 ‘전철’의 의미가 투명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연어로 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교재에서 명사를 중심으로 연어 목록을 작성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하고자 하기 때문에 임홍빈(2002)의 입장을 수용한다. 연어핵을 체언으로 보는 임홍빈(2002)의 연어 개념이 이 연구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교재의 연어 목록을 중심으로 명사 연어핵을 추출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김진해(2000)에서 제시된 연어의 개념은 의미나 심리적인 양상을 중시하고 있어 연어 여부를 가리는 데에 어려움을 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여기에서는 임홍빈(2002)에서 제시된 연어핵의 입장을 수용한다.

제 2 절 연어 교육의 중요성

언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이며 의사소통을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풍부한 어휘력이다. 제2언어 교육에서 Lewis(2000)는 어휘 중심 접근법(Lexical approach)을 주장했다. 그리고 중급 학습자와 고급 학습자의 차이는 복잡한 문법에 대한 숙달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 가능한 심적 어휘부(Mental Lexicon)의 확장에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외국어 교육에 있어 고급 단계의 학습자 일수록 문법에 대한 학습보다는 어휘의 학습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언어 교수에서 어휘 중심 접근법은 의사소통 접근 방식의 기본 원칙을 근거로 하여 언어 안에서 발생하는 어휘의 성질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키

으로 반투명하다는 것은 어휘적 연어를 이루는 언어 구성의 구성 요소 중 어느 하나가 독자적인 의미로 사용되었거나 두 구성 요소 모두 독자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뜻이라고 하였다. 즉 연어는 구성 요소의 의미 결합으로 구 전체의 의미를 이끌어 낼 수 있다.

- 13) 김진해(2002)에서는 ‘개가 짖다’, ‘전철을 밟다’와 같은 경우로 보고 있고, ‘육을 먹다’류는 다소 연어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이동혁(1998)에서 전형적인 연어의 예를 ‘육을 먹다’류로 보고 있는 것과 다른 관점이다.

고, 어휘가 언어 교수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어휘 중심 접근법에서 언어 습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휘구를 쪼개지 않은 하나의 전체 또는 말뭉치(chunks)로 이해하고 발화하는 능력이며 말뭉치는 학습자들의 중요한 언어 자원이 된다고 설명한다.

언어 사용에서 어휘들은 다른 특정 단어들과 어울려서 쓰인다. 어휘 간의 결합과 선택은 제한될 수도 있고, 개방될 수도 있는 등 다양한 결합 방식에 의해 이루어진다. 어휘 사용이 다양한 결합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어휘를 개별 단위로 보는 시각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

Hill(2000:53~56)은 언어 교육 측면에서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 (10) 가. 어휘부는 자의적이지 않다. 곧 ‘마시다’와 연어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은 물, 커피, 주스 등과 같은 액체 종류이다.
- 나. 수업시간에 학습한 연어는 학습자가 확장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패턴을 예측할 수 있게 해 준다.
- 다. 말하고 듣고 쓰고 읽는 것의 70% 정도가 모두 고정된 표현들이다.
- 르. 좋은 입력이 좋은 검색 결과를 낳는다.
- 로. 연어는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해 준다.
- 비. 복잡한 생각을 간단한 어휘적 연어로 표현할 수 있다.
- 스. 연어는 사고를 쉽게 만든다.
- 오. 덩어리로 발음과 함께 학습하면 강세와 억양이 더욱 좋아질 것이다.
- 즈. 덩어리로 인지하는 것이 습득에 필수적이다.

한송화·강현화(2004:296)¹⁴⁾에서는 어휘 교육은 어휘 낱말의 의미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어휘의 연결 관계에 대한 교육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14) 한송화·강현화(2004:300)에서는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 어휘의 의미 이해라는 측면 외에 어휘 의미를 정의할 때 연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즉, ‘노란 국화꽃’, ‘누런 이빨’, ‘뽽뽽 흘러다’, ‘덩 비었다’와 같은 어휘 간의 공기 정보가 어휘 의미를 설명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이다.

어휘 교육에서 학습자에게 연어(collocation)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연어 환경을 교육시키는 것이 학습자의 어휘력 향상에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현재의 과제 기반 접근법에서 봉착하여 학습자의 유창성을 강조한 나머지 정확성이 결여되는 데 따르는 여러 고민을 해결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학습자가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에게 더욱 더 많은 언어를 습득할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언어의 생산(output)을 위한 언어의 입력(input)을 위해서 어휘의 연어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언어를 중심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어휘 중심 접근법은 언어 교수·학습에서 연어 학습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 한국인 화자가 자주 사용하는 연어 목록을 학습자에게 미리 제공하고 교육시키면 오류를 줄일 수 있으며¹⁵⁾, 언어의 유창성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어휘적 접근법의 기본적인 관점을 소개하면서 어휘 교육이 단순한 개별 어휘를 넘어서 덩어리로서의 어휘에 주목하고 있으며, 다양한 층위의 개별 어휘들의 결합적인 관계까지 보여줄 수 있는 연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언어 교육은 기본적으로 어휘의 사용 능력을 위해 중요하다. 외국어 학습자가 접하게 되는 다양한 어휘 항목이나 어휘구에서 언어를 접하게 될 때는 문맥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특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언어에 대한 지식이 없이 개별 어휘만 가지고는 어휘의 활용이 불가능하며 정확한 의사전달에 어려움을 겪는다.

예를 들어, 영어권 화자가 ‘어제 시험을 봤습니다.’라는 한국어 문장을 접했을 때, ‘시험’이라는 어휘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해당 문장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같은 문장을 표현해야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시험’이라는 단어를 문장 안에서 사용할 때 어떻게 나타내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문장을 생성하기 힘들다. ‘시험을 보다’

15)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밥을 먹다’를 연어로 학습한 후에 ‘식사’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면 ‘식사를 하다’가 올바른 연어쌍인데 대부분의 ‘식사를 먹다’라는 잘못된 연어를 생산한다. 학습자가 흔히 일으킬 수 있으며 자주 사용하는 언어를 미리 제공하면 오류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는 영어로 ‘take an exam’이기 때문에 학습자는 ‘어제 시험을 가졌습니다.’라는 문장을 생성할 수도 있다. 이러한 오류는 학습자의 모국어와 목표어를 단어 대 단어로 직역하기 때문이다. 또한 명사와 자주 결합하는 ‘하다’를 사용하여 ‘어제 시험을 했습니다.’라는 표현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를 볼 때, 학습자가 알고 있는 개별 어휘를 실제 의사소통에서 원활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언어 지식의 습득이 필수적이며, 단어의 습관적인 결합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흔히 범하는 오류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위와 같은 예는 어휘의 사용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언어 교육이 자유 결합이나 관용어, 속담 등의 교육과 달라져야 하며, 같은 덩어리말의 범주에 속하는 관용어나 속담보다 우선적으로 교육해야 함을 보여준다. 관용어와 속담은 언어의 이해에는 필수적이나 언어와는 다르게 언어 표현의 필수적 요소는 아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 의사소통에서 다음과 같은 관용어나 속담은 이해 영역에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표현 영역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도록 한다.¹⁶⁾

- (11) ㄱ. 비행기를 태우다 → 남을 지나치게 칭찬하거나 높이 추어올려 준다.
 ㄴ. 파리를 날리다 → 영업이나 사업 따위가 잘 안되어 한가하다.
 (12) ㄷ. 마른하늘에 벼락 맞는다 → 뜻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뜻밖에 입은 재난.
 ㄹ. 하나를 보고 열을 안다 → 일부만 보고 전체를 미루어 안다는 말.

(11)은 관용어의 예이고 (12)는 속담의 예이다. (11, 12)는 모두 다른 표현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따라서 관용어나 속담은 언어와는 달리 이해 영역과 표현 영역에서 다른 지도가 필요하다.¹⁷⁾ 학습한 어휘를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어휘를 뭉치로 가르쳐야 할 것이다. 어휘 간의 결합 방식으로 이루어진 어휘 덩어리인 언어를 사용한 학습

16) 관용어와 속담의 의미는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 참고하였다.

17) 이에 문금현(1998:208~209)에서는 이해 영역에서는 관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나 표현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으며, 일부 비속적인 관용어에 대해서는 그 사용을 금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관용 표현에 대한 학습은 중급 이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은 개별적인 어휘 학습의 단점을 보완해 준다. 연어의 사용은 우리가 매일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것으로 구어나 문어 텍스트에서 고정된 표현이다. 그만큼 연어는 언어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언어 사용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연어 교육이 어휘 교육에서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로 어휘능력의 확장을 들 수 있다. 연어 지식의 습득은 학습자들이 기존에 학습한 개별 어휘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어휘의 활용 능력을 확장시켜 준다. 이러한 연어의 기능에 관해 Hill(2000:62)은 2,000개의 개별 어휘를 알고 있는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2,000개의 개별 어휘에 관해 각기 6개의 연어 관계를 알고 있는 학습자는 12,000개의 표현을 알고 있는 것과 같다고 설명하였다.

이상 연어를 이용한 어휘교육의 의의 및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연어 교육의 의의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정된 표현을 익혀 빠르고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둘째, 연어 사용의 정보를 익혀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셋째, 어휘능력의 확장에 도움이 된다.

제 3 장 한국어 교재에서의 연어

한국어 수업에서의 연어 교육은 아직까지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외국인 학습자들이 발화 상황에서 수준 높은 한국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연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교육의 중심이 되는 요소는 교재이기 때문에 교재를 통해 연어 교육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¹⁸⁾ 현재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교육은 주로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업은 교재를 중심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에서 교재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교재는 교사와 학습자를 이어주는 매개체로 학습자의 학습활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어 교재를 통해 연어가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한국어 연어 교육의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연어 교육용 명사 어휘를 선정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 교재에 제시된 연어 목록을 추출하기로 한다.

한국어 교재에서의 연어 제시 양상을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이상적인 연어 제시 방안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구체적인 연어 교수 방법에 대한 연구로서 학문적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어 교재 개발과 한국어 교육 현장에 응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제 1 절 분석 대상 및 방법

이 연구는 한국어 어휘 교육 중 연어 교육에 대한 것으로 한국어 교실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교실에서 학습자와 교사의 매개체가 되는 교재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본문에 수

18) 교재에 중요성에 대해 이은희(2004:208)에서 “교육과정은 교육의 전체적 틀을 규정하지만, 교수·학습 과정의 매체로 수업의 실제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교재라는 점에서 교재는 일차적인 중요성을 지님”을 지적하였다.

록된 내용과 단어 색인에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여 교재에 명시적으로 제시된 내용 중에서 연어로 분류되는 것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¹⁹⁾

이 연구에서는 연어 제시 양상을 분석할 한국어 교재를 선정하기 위해, 일반 목적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재 중 교재의 수준이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뉜 교재, 대학교의 부속 어학교육원에서 만든 정규 교재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의 초급단계부터 고급단계까지의 한국어 교재 35권을 선정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1권부터 4권까지만 시판되고 있는 서울대 교재는 제외되었지만 이 교재는 국내에서 교육 기관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어학교육원의 교재이므로 교재 4권을 함께 포함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재 총 39권에 제시되어 있는 연어를 분석할 것이다.

교재는 현재 모두 출판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연습문제 위주의 부교재나 교사가 만든 수업 자료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자유 결합과 관용어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끝으로 해당 연어가 여러 차례 제시될 경우에는 가장 처음 제시된 것을 기준으로 분석 결과를 기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 교재와 기관명, 단계는 다음과 같다.

<표 8> 한국어 교재의 사용기관과 교재명

기관명	교재명	단계
경희대	『한국어』	초급1, 2 / 중급1, 2 / 고급1, 2
고려대	『한국어』	1~6
서강대	『서강 한국어』	1A, B / 2A, B / 3A, B / 4A, B / 5A, B
서울대	『한국어』	1~4
성균관대	『배우기 쉬운 한국어』	1~6
연세대	『연세 한국어』	1~6
이화여대	『말이 트이는 한국어』	1~5

19) 즉 명시적으로 교재 내에서 제시하지 않은 연어는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항목은 교과과정 설계에 포함하는 교수·학습의 대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표 8>에서 제시한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한국어 숙달도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단계로²⁰⁾ 나누어 연어의 항목별 특징을 살펴본다.

제 2 절 한국어 교재별 연어 제시의 현황

1. 경희대 『한국어』

경희대 교재는 의사소통 교수법과 과제 중심의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초급 단계에서는 5단원마다 종합 연습 단원을 두고 있다. 초급부터 고급까지 각 급별로 I, II 권으로 두 권씩 총 6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새 단어에서는 각 단원에서 나온 새로운 어휘와 표현을 제시하고 표현에는 관용 표현, 연어 표현 등을 제시하였다. 연어는 초급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제시되는데, 각 단원 마지막 페이지에 어휘를 제시하고 하단에 연어를 별도로 제시한다.²¹⁾ 초급 II에서는 단원의 마지막에 제시하고, 연어로 학습 활동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반면 중급에서는 초급과 달리 연어 항목을 따로 제시하지 않으며, 지문이나 학습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이 자연스럽게 연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희대 『한국어』에 제시된 연어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9> 경희대 교재 『한국어』에 제시된 연어

한국어 초급 I	노래를 부르다 / 담배를 피우다 / 등산을 가다 / 마음에 들다 / 배가 고프다 / 비가 오다 / 사진을 찍다 / 수업이 끝나다 / 시험을 보다 / 우산을 쓰다
-------------	---

20) 일반적으로 한국어 숙달도에 의한 단계는 교육시간이 초급 400시간, 중급 800시간, 고급 1,200시간으로 구분된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는 등급을 6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초급 단계는 한국어 능력시험 1·2급, 중급은 3·4급, 고급은 5·6급에 해당한다.

21) 본고에서 검토한 7종의 한국어 교재 중 경희대 초급 교재만 개별 어휘와 별개로 연어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어 초급 II	가방을 메다 / 감기에 걸리다 / 관심이 많다 / 관심이 있다 / 구두를 신다 / 구름이 끼다 / 기분이 좋다 / 기침이 나다 / 꽃이 피다 / 눈이 내리다 / 비가 내리다 / 대회에 나가다 / 돈을 벌다 / 돈을 쓰다 / 말을 타다 / 머리를 감다 / 머리를 깎다 / 머리를 자르다 / 명이 들다 / 메모를 남기다 / 면접을 보다 / 모자를 쓰다 / 값을 깎다 / 바람이 불다 / 방해가 되다 / 배탈이 나다 / 불을 끄다 / 비가 그치다 / 비디오를 찍다 / 살이 찌다 / 성격이 좋다 / 소포를 부치다 / 시간이 있다 / 안개가 끼다 / 안경을 끼다 / 안경을 쓰다 / 약속을 지키다 / 양말을 신다 / 어깨에 메다 / 엑스레이를 찍다 / 열이 나다 / 요금을 내다 / 용돈을 쓰다 / 음악을 틀다 / 텔레비전을 틀다 / 이를 닦다 / 인기가 많다 / 잠을 자다 / 잠이 들다 / 장갑을 끼다 / 전화가 오다 / 전화를 걸다 / 전화를 끊다 / 주사를 맞다 / 처방전을 받다 / 천둥이 치다 / 번개가 치다 / 체격이 좋다 / 춤을 추다 / 친구를 사귀다 / 커피를 뽑다 / 컴퓨터를 끄다 / 컴퓨터를 켜다 / 콧물이 나다 / 키가 크다 / 테니스를 치다 / 피가 나다 / 화가 나다 / 화를 내다 / 휴가를 떠나다
한국어 중급 I	나이를 먹다 / 높이를 맞추다 / 눈치를 보다 / 달이 뜨다 / 돈이 들다 / 말을 걸다 / 몸이 붓다 / 바둑을 두다 / 별을 따다 / 불을 피우다 / 불이 나다 / 비를 맞다 / 상을 타다 / 생일을 맞다 / 선을 보다 / 손을 대다 / 술을 따르다 / 신경을 쓰다 / 야단을 맞다 / 영향을 미치다 / 운명을 맞추다 / 자료가 날아가다 / 잠을 설치다 / 적성에 맞다 / 전보를 치다 / 줄을 치다 / 첫눈에 반하다 / 최선을 다하다 / 컴퓨터를 치다
한국어 중급 II	값이 나가다 / 겹이 나다 / 고집이 세다 / 곤란을 겪다 / 길이 막히다 / 김치를 담그다 / 눈을 감다 / 눈을 뜨다 / 더위를 타다 / 등을 밀다 / 마음을 졸이다 / 머리를 식히다 / 머리에 이다 / 목이 마르다 / 몸을 담그다 / 바람을 맞다 / 밤을 새우다 / 빗을 झा다 / 수다를 떨다 / 시간을 내다 / 신경을 쓰다 / 욕심을 부리다 / 음식이 상하다 / 인정을 받다 / 자리를 잡다 / 전화를 주다 / 제사를 지내다 / 줄음이 쏟아지다 / 줄을 서다 / 짜증을 부리다 / 철이 없다 / 홍수가 나다

한국어 고급 I	과일이 무르다 / 기승을 부리다 / 껍이가 생기다 / 녹초가 되다 / 눈치가 보이다 / 대출을 받다 / 마늘을 다지다 / 떡을 감다 / 문 을 나서다 / 불에 데다 / 생떼를 쓰다 / 속이 쓰리다 / 손을 베다 / 숨을 쉬다 / 승부를 가리다 / 양탈을 부리다 / 인기를 누리다 / 증명서를 떼다 / 체로 거르다 / 파도가 일다 / 팔자가 세다 / 편 잔을 듣다 / 향이 배다
한국어 고급 II	곰팡이가 슬다 / 목소리가 쉬다 / 물기가 빠지다 / 물기가 잦아지 다 / 소란을 떨다 / 신명이 나다 / 어깨를 들썩이다 / 짐을 꾸리 다 / 추앙을 받다 / 탈이 나다

초급 II에서는 주말에 하는 일에 대한 질문으로 ‘테니스를 치다, 휴가를 떠나다’ 등과 같은 연어가 제시되고 질병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 12, 13단원에서는 ‘배탈이 나다, 주사를 맞다, 처방전을 받다’ 등과 같은 연어가 제시되었다. 이처럼 초급 교재에서는 주제와 관련하여 연어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중급에서도 의도적으로 주제와 관련된 연어를 제시하고 있다.²²⁾

이외에 고급 교재에서는 ‘소란, 신명, 추앙, 탈’과 같은 고난이도 어휘와 함께 다양한 연어 관계가 제시되고 있다.

한편 명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어 관계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소포’를 연어핵으로 하여 ‘소포를 보내다’, 그리고 ‘소포를 부치다’와 ‘소포로 부치다’가 제시되어 있다. 단순 어휘를 제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확장 사용할 수 있도록 제시한 것은 학습자의 어휘 사용 능력 향상에 유용할 것이다.

경희대 교재의 특징은 교재 뒤 색인에 표현과 어휘를 따로 분류하고 있고, 연어를 단어 색인 부분의 ‘표현 찾아보기’에서 다른 표현 목록들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학습자들이 보다 쉽게 교재 안의 연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22) 중급 I-2단원에서는 ‘신체에 관련된 연어’가 많이 제시되어 있다.

2. 고려대 『한국어』

고려대 교재는 청각구두식 교수법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초급 2권, 중급 2권, 고급 2권으로 총 6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려대 교재 『한국어』에서는 1권과 2권에서 본문과 연습문제 다음에 새 단어가 제시되어 있고, 그 새 단어 속에 연어가 함께 제시되어 있으며 문형 연습에서 연어를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1권과 2권에서는 일부의 연어가 제시되어 있으며 3권부터는 전혀 연어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표 10> 고려대 교재 『한국어』에 제시된 연어

한국어 1	감기에 걸리다 / 기분이 좋다 / 기타를 치다 / 길이 막히다 / 꽃이 피다 / 노래를 부르다 / 담배를 끊다 / 담배를 피우다 / 돈을 벌다 / 머리를 감다 / 배가 고프다 / 배가 부르다 / 비가 오다 / 사진을 찍다 / 손을 들다 / 운이 좋다 / 전화를 걸다 / 전화를 받다 / 춤을 추다 / 테니스를 치다 / 힘이 없다
한국어 2	겁이 나다 / 꿈을 꾸다 / 돈을 내다 / 냄새를 맡다 / 눈에 띄다 / 마음에 들다 / 미소를 짓다 / 바람이 불다 / 비가 퍼붓다 / 비를 맞다 / 사이가 좋다 / 살을 빼다 / 살이 찌다 / 생각이 나다 / 소리를 지르다 / 소리를 내다 / 숨이 차다 / 스트레스가 쌓이다 / 스트레스가 풀리다 / 스트레스를 풀다 / 신경을 쓰다 / 정신이 없다 / 화가 나다 / 화를 내다 / 효과가 있다

『한국어』에서는 3권부터 연어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교재에 연어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문장 속에서 제시된 연어들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연어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본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학습하는 것은 이해에 측면에서는 적당하지만 표현의 측면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다. 학습자가 본문에 제시된 연어를 이해할 때 연어에 대한 정보가 없어도 문맥이나 상황에 의해서 이해할 수 있지만, 연어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정확한 연어 사용을 위해서는 새 단어나 표현 부분에서 명시적으로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서강대 『서강 한국어』

서강대 교재는 의사소통 학습 활동과 과제 중심 활동을 고르게 배치하였으며 학습자가 스스로 언어 지식을 인지할 수 있도록 영문 설명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서강대 『서강한국어』 1A권과 1B권은 한글 4단원, 준비 4단원, 본 과 6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A, B권은 각 9단원, 그 외의 1B부터 5B까지는 각각 8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는 ‘어휘와 표현, 새단어와 표현, 새단어와 문법’에 제시되어 있다. 개별 단어를 제시할 때 언어를 함께 제시하여 학습자의 이해를 높인다.

<표 11> 서강대 교재 『서강 한국어』에 제시된 언어

서강 한국어 1	감기에 걸리다 / 골프를 치다 / 길이 막히다 / 날씨가 좋다 / 마음에 들다 / 바람이 불다 / 배가 고프다 / 배가 부르다 / 비가 오다 / 사진을 찍다 / 스케이트를 타다 / 스키를 타다 / 시험을 보다 / 여행을 하다 / 열이 나다 / 춤을 추다 / 탁구를 치다 / 테니스를 치다 / 화가 나다 / 화를 내다
서강 한국어 2	기억에 남다 / 기침이 나다 / 꿈을 꾸다 / 눈을 뜨다 / 다리를 떨다 / 돈을 벌다 / 마음이 넓다 / 마음이 무겁다 / 말을 걸다 / 배드민턴을 치다 / 배탈이 나다 / 복이 나가다 / 분위기가 좋다 / 불을 끄다 / 비가 오다 / 빛이 나다 / 사고가 나다 / 성격이 밝다 / 소화가 되다 / 수업을 듣다 / 숙제를 내다 / 시간이 나다 / 시험에 나오다 / 시험에 떨어지다 / 이가 빠지다 / 입에 맞다 / 자신이 없다 / 잠이 오다 / 전화를 끊다 / 전화를 받다 / 줄에 서다 / 차가 밀리다 / 코를 풀다 / 큰길이 나오다 / 피로가 풀리다 / 학교에 나오다
서강 한국어 3	가방을 메다 / 걱정이 되다 / 겁이 많다 / 계획을 세우다 / 고민이 있다 / 관심을 갖다 / 기억이 나다 / 기증을 받다 / 꿈을 이루다 / 난방이 되다 / 다리가 부러지다 / 대상을 받다 / 도움을 청하다 / 돈을 들이다 / 땀을 흘리다 / 땀이 나다 / 렌즈를 끼다 / 말이 통하다 / 목이 붓다 / 목표를 세우다 / 문제가 생기다 / 발목을 빼다 / 병에 걸리다 / 보수가 좋다 /

	부작용이 생기다 / 불을 때다 / 불이 들어오다 / 불판을 갈다 / 비밀을 지키다 / 소개를 받다 / 소리가 나다 / 속이 불편하 다 / 수업에 들어가다 / 수저를 들다 / 술을 줄이다 / 스트레 스를 받다 / 시간을 내다 / 시간을 들이다 / 시간이 생기다 / 실력이 늘다 / 아이를 키우다 / 안개가 끼다 / 안경을 끼다 / 연체료를 내다 / 욕심이 많다 / 위로를 받다 / 이야기를 나누 다 / 자격증을 따다 / 자료를 찾다 / 자신감이 생기다 / 전기 가 들어오다 / 전망이 좋다 / 정신이 없다 / 줄을 서다 / 지 배를 받다 / 직장을 옮기다 / 진찰을 받다 / 체격이 좋다 / 체구가 작다 / 최선을 다하다 / 치료를 받다 / 탁구를 치다 / 파일을 열다 / 해가 뜨다 / 햇빛이 강하다 / 회사에 들어오다 / 힘이 생기다 / 힘이 없다
서강 한국어 4	가을을 타다 / 감동을 받다 / 걸음을 걷다 / 결과를 내다 / 경기를 뛰다 / 고개를 돌리다 / 고무줄을 끊다 / 고집이 세다 / 공기를 마시다 / 관심을 가지다 / 교훈을 주다 / 구슬을 따 다 / 구슬을 맞히다 / 구슬을 치다 / 국도를 타다 / 기운이 없다 / 꾸중을 듣다 / 나라를 세우다 / 나이가 들다 / 냄새를 맡다 / 농사를 짓다 / 눈물을 닦다 / 눈물이 나다 / 눈을 치 우다 / 눈이 부시다 / 눈이 쌓이다 / 단풍이 들다 / 단풍이 지다 / 도움을 구하다 / 돈을 내다 / 동호회에 들다 / 마을을 다스리다 / 마음을 나누다 / 마음을 열다 / 마음이 생기다 / 말을 시키다 / 매력에 빠지다 / 면접을 보다 / 명성을 얻다 / 모임을 갖다 / 무릎을 꿇다 / 문제를 일으키다 / 바위에 새기 다 / 박수를 치다 / 버릇을 고치다 / 법을 지키다 / 벼락을 맞다 / 보고서를 내다 / 볼륨을 올리다 / 부탁을 들어주다 / 불이 나다 / 빛이 비치다 / 사랑에 빠지다 / 사랑을 나누다 / 사업을 꿈꾸다 / 사연을 보내다 / 사원을 뽑다 / 상상력이 풍 부하다 / 생각을 전하다 / 소리를 내다 / 숙제가 밀리다 / 술 래를 정하다 / 술에 취하다 / 숨이 멎다 / 식욕이 없다 / 신 문에 나다 / 심부름을 시키다 / 아쉬움이 남다 / 알이 깨지다 / 애기가 통하다 / 오해를 받다 / 용기를 잃다 / 운이 좋다 / 원을 그리다 / 은혜를 갚다 / 음식을 나누다 / 의욕이 생기다

	/ 인라인을 타다 / 인정이 없다 / 일정을 잡다 / 입장을 바꾸다 / 장가를 가다 / 장면을 놓치다 / 진공을 살리다 / 전화가 끊기다 / 절정에 달하다 / 점검을 받다 / 정보를 얻다 / 정성을 다하다 / 정성이 담기다 / 제사를 드리다 / 종을 치다 / 지원을 받다 / 짜증이 나다 / 차가 달리다 / 채널을 돌리다 / 추위가 풀리다 / 축제가 열리다 / 커피를 뽑다 / 클로버를 따다 / 텐트를 치다 / 텔레비전을 틀다 / 핑계를 대다 / 한숨이 나오다 / 해가 지다 / 허락을 받다 / 현실이 되다 / 화면이 끊기다 / 활을 쏘다 / 후배를 챙기다 / 힘이 세다
서강 한국어 5	가슴이 뛰다 / 갈등을 겪다 / 갈등이 생기다 / 겁에 질리다 / 경기에 나가다 / 고개를 끄덕이다 / 고개를 넘다 / 고집을 부리다 / 관계를 맺다 / 귀를 기울이다 / 깍지를 끼다 / 꽃이 피다 / 나무를 심다 / 논란이 일어나다 / 두각을 나타내다 / 마음씨가 곱다 / 망신을 당하다 / 맞장구를 치다 / 목소리가 굵다 / 목소리가 쉬다 / 문제점을 낳다 / 방귀를 뀌다 / 병을 앓다 / 부도가 나다 / 불안감을 덜다 / 비중을 두다 / 비판을 받다 / 습기가 차다 / 승부가 나다 / 시각을 넓히다 / 실력을 키우다 / 실수를 저지르다 / 싸움이 일어나다 / 어이가 없다 / 얼굴을 찌푸리다 / 여유를 부리다 / 영향을 미치다 / 외모를 가꾸다 / 우물에 비치다 / 위치에 오르다 / 음악에 맞추다 / 의견이 팽팽하다 / 의문을 가지다 / 이야기를 늘어놓다 / 인기를 누리다 / 입장을 밝히다 / 자리에 눕다 / 작전을 벌이다 / 장례식을 치르다 / 정을 쌓다 / 정이 들다 / 정체성을 갖추다 / 조화를 이루다 / 주의를 기울이다 / 직업으로 삼다 / 큰일이 나다 / 턱을 괴다 / 틀에 박히다 / 팔짱을 끼다 / 폐를 끼치다 / 피리를 불다 / 한계에 부딪히다 / 허리를 숙이다 / 화를 풀다 / 힘을 쓰다 / 힘을 주다

서강대 교재는 총 300개의 연어를 제시하고 있으며 다른 교재에 비해 제시량이 매우 많은 편이다. 특히 다른 교재에서 개별 어휘로 제시한 경우가 대부분인 어휘도 연어 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학습자의 이해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어휘 정보에 있어 해당 연어와 대응하는 영어 단어를 제시하여 간략한 의미 정보를 나타냈다. 『서강 한국어』는 본 교재 외에 문법·단어 참고서에서 본문에 제시된 어휘를 확장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서강 한국어』 1B에 제시된 ‘배가 고프다’의 반대어인 ‘배가 부르다’가 함께 제시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화가 나다’, ‘화를 내다’도 제시하고 있다. ‘시험에 나오다, 시험에 떨어지다’, ‘마음이 넓다, 마음이 무겁다’와 같이 명사를 중심으로 확장되는 연어는 함께 제시하여 학습자의 생산적인 사용을 돕고 있다.

4. 서울대 『한국어』

서울대 한국어 교재는 청각구두식 교수법과 과제 중심의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초급부터 고급까지 총 6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급에 해당하는 5, 6권은 서울대 내에서만 사용되고 있으므로 현재 정식 출판된 1권부터 4권까지의 교재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²³⁾ 연어는 대부분 ‘어휘와 표현’ 부분에서 다루고 있지만, ‘문법과 표현’란에 문형과 함께 제시되기도 하다. 4권에서는 연습문제 다음에 제시된 새단어에서 제시되어 있기도 하다. 이처럼 서울대 교재는 특정한 항목에서 제시된 것이 아니라 문법이나 어휘, 표현, 새단어 등에서 산만하게 제시되어 있다.

서울대 교재 1권부터 4권까지 제시된 연어는 다음 표와 같다.

<표 12> 서울대 교재 『한국어』에 제시된 연어

한국어 1	감기에 걸리다 / 강의가 없다 / 강의가 있다 / 강의를 듣다 / 강의를 받다 / 구경을 가다 / 맛이 있다
한국어 2	그림을 그리다 / 기회가 없다 / 기회가 있다 / 길이 막히다 / 껌을 씹다 / 꽃이 피다 / 꿈을 꾸다 / 낮잠을 자다 / 눈이 내리다 / 눈이 오다 / 담배를 끊다 / 담배를 피우다 / 바람이 불다 / 배가

23) 사모토 마리(2002)에 따르면 5권과 6권은 대학원 진학을 원하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서울대에서 강의를 할 때만 사용된다. 부록으로 속어, 속담, 관용어가 설명 예문과 함께 제시되고 있다.

	고프다 / 비가 내리다 / 비가 오다 / 생각이 나다 / 소개를 받다 / 소리를 내다 / 시간이 걸리다 / 시간이 나다 / 신발을 신다 / 잠을 자다 / 전화가 오다 / 전화를 받다 / 점수를 받다 / 점수를 주다 / 주문을 받다 / 질문이 없다 / 질문이 있다 / 초대를 받다 / 춤을 추다 / 큰일이 나다 / 탁구를 치다 / 테니스를 치다 / 피아노를 치다 / 화가 나다 / 화를 내다
한국어 3	가방을 들다 / 감기가 낫다 / 감기에 걸리다 / 계획을 세우다 / 고기를 재우다 / 고장이 나다 / 김치를 담그다 / 나이를 먹다 / 넥타이를 매다 / 노래를 부르다 / 돈을 벌다 / 돈이 들다 / 머리를 감기다 / 머리를 감다 / 모자를 쓰다 / 목이 마르다 / 문제를 내다 / 문제를 풀다 / 병이 나다 / 사고가 나다 / 사진이 나오다 / 상을 받다 / 상을 타다 / 생각이 들다 / 선을 보다 / 세탁기를 돌리다 / 소리를 지르다 / 소문을 듣다 / 소식을 듣다 / 수도를 틀다 / 시계를 차다 / 시험에 붙다 / 신청서를 내다 / 아기를 재우다 / 아이를 보다 / 아이를 울리다 / 안경을 끼다 / 야단을 맞다 / 야단을 치다 / 운이 나쁘다 / 운이 좋다 / 월급을 받다 / 월급을 타다 / 유리를 깨다 / 음악회가 열리다 / 자신이 생기다 / 자신이 없다 / 자신이 있다 / 잠을 깨다 ²⁴⁾ / 잠이 오다 / 장난을 치다 / 전기가 나가다 / 정이 들다 / 종이 울리다 / 주사를 맞다 / 주사를 맞히다 / 줄을 서다 / 최선을 다하다 / 화를 풀다
한국어 4	골치가 아프다 / 귀를 기울이다 / 농사를 짓다 / 돈을 걷다 / 밤을 새우다 / 신경을 쓰다 / 신이 나다 / 실감이 나다 / 싫증이 나다 / 약을 바르다 / 옷을 짓다 / 음식을 내놓다 / 인연이 있다 / 정신을 차리다 / 정신이 없다 / 피로가 풀리다

서울대 교재는 연어가 다른 교재보다 적게 제시되어 있다. 다양한 연어가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한 번 제시된 연어는 급에 상관없이 반복 제시한다. 많은 연어 목록을 제시하지 않고 한정된 목록을 여러 번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는 연어에 대한 학습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정확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초급-중급-고급으로 단계가 올라갈수록 급에 맞는

24) 3권에서는 ‘잠을 깨다’가 제시되는 데 이는 일상생활에서 비롯된 언어 습관으로 잘못된 연어이다. 올바른 연어는 ‘잠에서 깨다’이다.

연어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대 1권에서 눈에 띄는 것은 28단원에서 ‘강의가 있다’를 비롯하여 ‘강의가 없다, 강의를 하다, 강의를 듣다, 강의를 받다’를 모두 제시한 것이다. 강의를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형태의 연어를 제시하고 있다.

5. 성균관대 『배우기 쉬운 한국어』

성균관대 교재는 의사소통 교수법과 과제 중심의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권이다. 1권은 단어와 표현, 심화 어휘 부분을 나누어 표시하고 있는데 연어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본문에서 연어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3, 4권은 본문 다음에 읽고 답하기가 있는데, 그 아래에 어휘를 제시하고 있다. 5권은 본문 밑에 어휘를 제시하고 있다. 6권은 단어 익히기에 단어와 뜻을 제시하고 있다. 3~6권은 연어를 제시하기는 하지만, 연어를 별도로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지 않다. 색인 부분에서도 연어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중급에 많은 연어가 제시되어 있고 초급과 고급에서는 제시되어 있는 연어의 수가 적다.

<표 13> 성균관대 교재 『배우기 쉬운 한국어』에 제시된 연어

배우기 쉬운 한국어 1	감기에 걸리다 / 날씨가 좋다 / 날씨가 나쁘다 / 노래를 부르다 / 눈이 오다 / 담배를 피우다 / 마음에 들다 / 바람이 불다 / 비가 오다 / 사진을 찍다 / 살이 찌다 / 약속을 지키다 / 열이 나다 / 전화를 걸다 / 차가 막히다 / 총을 쏘다
배우기 쉬운 한국어 2	나이를 먹다 / 마음에 들다 / 마중을 나오다 / 살이 찌다 / 소름 이 돋다 / 신경을 쓰다
배우기 쉬운 한국어 3	계획을 세우다 / 고장이 나다 / 군침이 돌다 / 금슬이 좋다 / 낙 엽이 지다 / 입에 맞다 / 눈물을 흘리다 / 단풍이 물들다 / 돈이 들다 / 등산을 가다 / 땀이 나다 / 마음에 두다 / 말이 나오다 / 모기에 물리다 / 목소리가 좋다 / 몸에 좋다 / 땀을 세우다 / 사 고가 나다 / 살이 빠지다 / 사고가 나다 / 시험에서 떨어지다 /

	안개가 개다 / 안개가 끼다 / 약을 짓다 / 욕심을 부리다 / 용기를 잃다 / 음식을 시키다 / 입맛에 맞다 / 입맛이 없다 / 잔치를 벌이다 / 잠이 들다 / 잠자리에 들다 / 짜증이나다 / 최선을 다하다 / 함성을 지르다 / 욕심을 부리다 / 용기를 잃다
배우기 쉬운 한국어 4	골치가 아프다 / 나이가 들다 / 날씨가 풀리다 / 눈에 띄다 / 실감이나다 / 얼굴색이 좋다 / 영향을 미치다 / 직업을 구하다 / 침을 튀기다 / 화가 풀리다 / 화해를 시키다
배우기 쉬운 한국어 5	고향에 내려가다 / 기회로 삼다 / 대접을 받다 / 시간을 때우다 / 말을 건네다 / 매를 맞다 / 목숨을 잃다 / 몸을 가꾸다 / 문제를 해결하다 / 살을 빼다 / 상을 차리다 / 시간이 걸리다 / 시간이 지나다 / 역사에 드러나다 / 영향을 받다 / 영향을 주다 / 정책을 세우다 / 게으름을 피우다 / 흥미를 잃다
배우기 쉬운 한국어 6	녹이 슬다 / 잠을 설치다

성균관대는 초급에서는 ‘날씨’를 연어핵으로 하여 ‘좋다, 나쁘다’가 제시되어 있고 고급에서는 ‘시간’을 연어핵으로 하여 ‘걸리다, 지나다’, ‘영향’을 연어핵으로 하여 ‘받다, 주다’를 제시하고 있다.

초급에서는 ‘날씨’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날씨가 좋다, 날씨가 나쁘다, 눈이 오다, 바람이 불다, 비가 오다’와 같은 주제 관련 연어가 제시되고 있다. 중급에서는 ‘신체’와 관련하여 ‘땀이 나다, 몸에 좋다, 살이 빠지다, 얼굴색이 좋다’와 같은 연어가 제시되어 있다.

『배우기 쉬운 한국어 1, 2』의 ‘총을 쏘다, 소름이 돋다’는 초급에서 제시되기에는 난이도가 높은 연어로 고급에서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6. 연세대 『연세 한국어』

연세대 교재는 의사소통 교수법과 과제 중심의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재는 단원 제목과 함께 단원의 내용을 제목 밑에 표로 제시하였는데,

표에는 각 항의 제목과 어휘, 문법, 과제, 문화를 제시하여 각 단원에서 다룰 내용을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하였다.

어휘 항목에서는 각 단원의 주제나 기능과 관련된 어휘 목록을 확장 제시하였으며, 과제에 나오는 새 단어는 과제 밑에 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색인에서는 각 단원에서 다룬 어휘를 가나다순으로 정리하였으며 본문에서 제시된 항을 함께 표시하였다.

<표 14> 연세대 교재 『연세 한국어』에 제시된 연어

연세 한국어 1	계획을 세우다 / 계획이 없다 / 계획이 있다 / 구름이 끼다 / 눈이 그치다 / 눈이 내리다 / 눈이 오다 / 머리를 감다 / 메시지를 보내다 / 메시지를 확인하다 / 바람이 강하다 / 바람이 불다 / 바람이 약하다 / 병에 걸리다 / 불이 나다 / 비가 그치다 / 비가 내리다 / 비가 오다 / 신호가 가다 / 안개가 끼다 / 약속을 어기다 / 약속을 지키다 / 메시지를 남기다 / 전화를 걸다 / 전화를 끊다 / 전화를 받다 / 전화번호를 누르다 / 전화벨이 울리다 / 탁구를 치다 / 핸드폰을 끄다 / 핸드폰을 켜다
연세 한국어 2	결레질을 하다 / 계약을 하다 / 구멍이 나다 / 기대가 되다 / 기억에 남다 / 기침을 하다 / 돈을 찾다 / 두통이 심하다 / 마당을 쓸다 / 마음에 들다 / 먼지를 털다 / 몸이 떨리다 / 물에 빠지다 / 박수를 치다 / 배탈이 나다 / 번호표를 뽑다 / 보험에 들다 / 살이 빠지다 / 소화가 되다 / 속이 쓰리다 / 시험에 붙다 / 싫증이 나다 / 야단을 치다 / 약속을 미루다 / 약속을 취소하다 / 엄살을 부리다 / 열이 나다 / 자료를 찾다 / 전화가 오다 / 전화를 바꿔 주다 / 전화를 잘못 걸다 / 줄을 서다 / 충혈이 되다 / 코가 막히다
연세 한국어 3	기분이 상하다 / 기운이 없다 / 김치를 담그다 / 도시락을 싸다 / 도움을 청하다 / 돈을 벌다 / 마음을 먹다 / 마음이 넓다 / 마중을 나가다 / 맛을 보다 / 몸살이 나다 / 밤을 새우다 / 성의가 없다 / 시간을 내다 / 시간이 나다 / 시간이 흐르다 / 오해를 사다 / 이사를 오다 / 인사를 가다 / 인정을 받다 / 전화가 걸리다 / 팔짱을 끼다
연세 한국어 4	덕을 보다 / 목표를 정하다 / 시간에 쫓기다 / 시간을 관리하다

연세 한국어 5	날을 잡다 / 눈길을 끌다 / 눈에 선하다 / 명복을 빌다 / 사력을 다하다 / 상투를 틀다 / 욕심을 부리다 / 의심을 사다 / 조의를 표하다 / 초상을 치르다 / 트집을 잡다 / 표가 나다 / 피해를 입다
연세 한국어 6	가치관을 심어주다 / 가치관을 형성하다 / 가치관을 확립하다 / 가치관의 혼란을 겪다 / 가치판단을 내리다 / 가치판단이 서다 / 갈등을 빚다 / 갈등을 해소하다 / 갈등이 심화되다 / 고민을 털어놓다 / 고민을 해결하다 / 고민이 생기다 / 고충을 털어놓다 / 고충이 따르다 / 납득이 가다 / 눈을 돌리다 / 능력을 펼치다 / 마음을 줄이다 / 마찰을 겪다 / 마찰을 일으키다 / 마찰이 심하다 / 메달을 따다 / 경험을 쌓다 / 힘을 쓰다 / 전공을 살리다 / 조언을 구하다 / 조언을 따르다 / 조언을 아끼지 않다 / 창의성이 풍부하다 / 책임감이 강하다 / 충고를 따르다 / 충고를 받아들이다 / 틀에 박히다 / 협동심이 강하다 / 화해를 청하다

연세대 교재는 다른 교재에 비해 명사를 중심으로 연어가 제시되어 있다. 본문 주제에 어울리는 연어가 명사 연어핵을 중심으로 제시되는데 예를 들면 날씨와 관련된 어휘에 비, 눈, 바람이 함께 제시되면서 ‘비가 오다, 비가 내리다, 눈이 오다, 눈이 그치다, 바람이 불다, 바람이 강하다’ 등을 그림과 함께 보여준다. 이 외에도 생일 파티와 관련된 어휘, 감기 증세와 관련된 어휘, 약속, 전화와 관련된 어휘도 명사 연어핵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7. 이화여대 『말이 트이는 한국어』

과제 중심 언어 학습 이론과 의사소통 교수법을 도입한 교재로 컬러로 제시되어 있다. 문법과 연습 활동은 제시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설명은 배제하여 학생들이 문법 지식을 귀납적으로 인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화여대 교재 『말이 트이는 한국어』는 모두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1, 2, 3권은 각각 15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준비합시다, 문형, 해 봅시다, 읽기’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하단에 ‘단어’와 ‘표현’란을 두고 여기에 새

단어를 제시하고 있으며 연어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다른 교재들에 비해 이화여대 교재는 많은 연어가 제시되어 있는 편이다.

4, 5권은 각각 10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단원마다 과제(task)가 있다. 각 ‘과제’에 ‘도움 어휘’와 ‘관련어휘’가 있고, ‘읽기’에 ‘단어와 표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어휘와 같이 연어가 제시되어 있다.

<표 15> 이화여대 교재 『말이 트이는 한국어』에 제시된 연어

말이 트이는 한국어 1	경치가 좋다 / 고장이 나다 / 골프를 치다 / 관심이 많다 / 기분이 나쁘다 / 기분이 좋다 / 길이 막히다 / 김치를 담그다 / 꿈을 꾸다 / 날씨가 좋다 / 눈이 나빠지다 / 눈이 오다 / 마음에 들다 / 마음이 넓다 / 머리를 자르다 / 바람이 불다 / 바이올린을 켜다 / 반지를 끼다 / 배가 고프다 / 배가 부르다 / 비가 오다 / 사진을 찍다 / 생각이 나다 / 소리를 지르다 / 소매치기를 당하다 / 스키를 타다 / 스트레스가 풀리다 / 습기가 많다 / 시간이 없다 / 시간이 있다 / 안개가 끼다 / 안경을 쓰다 / 일교차가 심하다 / 조언을 구하다 / 짐을 풀다 / 춤을 추다 / 취미를 가지다 / 친구를 사귀다 / 카드로 내다 / 태풍이 불다 / 피아노를 치다
말이 트이는 한국어 2	감기에 걸리다 / 강의를 듣다 / 거품을 내다 / 걱정이 되다 / 계획을 세우다 / 고개를 돌리다 / 공기가 탁하다 / 관심을 갖다 / 군침이 돌다 / 기대가 되다 / 기대가 크다 / 기억에 남다 / 기억이 나다 / 김치를 담그다 / 냄새가 나다 / 눈을 뜨다 / 눈이 부시다 / 도움이 되다 / 돈을 따다 / 돈을 벌다 / 돈을 쓰다 / 돈을 아끼다 / 돈을 잃다 / 땀이 나다 / 멍이 들다 / 면허증을 따다 / 몸살이 나다 / 물가가 싸다 / 물가가 비싸다 / 물기를 빼다 / 밥을 새우다 / 밥을 짓다 / 방해가 되다 / 배탈이 나다 / 변비에 걸리다 / 별이 들다 / 분위기가 좋다 / 분위기가 나쁘다 / 살을 빼다 / 살이 빠지다 / 소화가 되다 / 수수료를 내다 / 스트레스가 쌓이다 / 스트레스를 받다 / 스트레스를 풀다 / 시간이 지나다 / 실례가 되다 / 약속을 지키다 / 엄벌에 처하다 / 연락이 끊기다 / 열이 있다 / 올림픽이 열린다 / 웃음이 돌다 / 원서를 내다 / 음식을 시키다 / 음악이 흐르다 / 과목을 듣다 / 일이 생기다 / 입에 맞다 / 잔디를 깎다 / 잠이 들다 / 재미를 붙이다 / 재채기가

	나다 / 적성에 맞다 / 전망이 좋다 / 점심을 내다 / 주사를 맞다 / 줄을 서다 / 짐을 들다 / 집을 짓다 / 차례가 되다 / 체중이 늘다 / 피해를 주다 / 힘이 들다
말이 트이는 한국어 3	갈등을 겪다 / 견문을 넓히다 / 경험을 쌓다 / 관심이 없다 / 관심이 있다 / 기저귀를 풀다 / 꿈을 꾸다 / 눈에 띄다 / 다리를 빼이다 / 단풍이 들다 / 더위를 식히다 / 도둑을 맞다 / 도둑이 들다 / 돌을 치르다 / 들통이 나다 / 때가 타다 / 렌즈를 끼다 / 머리가 좋다 / 명이 들다 / 몸이 약하다 / 뱀이 울리다 / 살이 찌다 / 상을 차리다 / 슬럼프에 빠지다 / 시간을 내다 / 신이 나다 / 아이디어를 내다 / 여유가 많다 / 여유가 생기다 / 여유가 없다 / 여유가 있다 / 열이 나다 / 열이 높다 / 열이 있다 / 오해가 쌓이다 / 오해가 있다 / 용기가 나다 / 용기를 내다 / 용기를 주다 / 울음을 터뜨리다 / 웃음을 띠다 / 웃음이 나오다 / 이유를 대다 / 일을 망치다 / 일을 익히다 / 자신이 생기다 / 잘못을 범하다 / 잠을 설치다 / 잠이 들다 / 잠자리에 들다 / 정신을 차리다 / 주의를 주다 / 짜증이 나다 / 차를 빼다 / 치료를 받다 / 편지를 부치다 / 호감이 가다
말이 트이는 한국어 4	가격이 세다 / 각광을 받다 / 견적을 내다 / 곤란을 겪다 / 곤혹을 치르다 / 과거에 급제하다 / 능청을 떨다 / 등지를 틀다 / 마음씨가 곱다 / 매를 맞다 / 목숨을 끊다 / 무게를 재다 / 물이 빠지다 / 배를 채우다 / 벌을 받다 / 범벽이 되다 / 병을 앓다 / 부상을 입다 / 불편을 끼치다 / 상황에 처하다 / 색을 밝히다 / 소신을 잃다 / 손뼉을 치다 / 숨을 거두다 / 습관을 들이다 / 시간이 빠듯하다 / 신의를 저버리다 / 여유를 부리다 / 영향을 받다 / 옥에 갇히다 / 외상을 얻다 / 울음을 그치다 / 이름을 떨치다 / 절개를 지키다 / 종말을 맞다 / 치성을 드리다 / 토대를 만들다 / 하수구가 막히다 / 하수구를 뚫다 / 한눈에 반하다 / 행실이 바르다 / 호통을 치다 / 효과를 거두다 / 효성이 지극하다
말이 트이는 한국어 5	가치를 부여하다 / 경의를 표하다 / 고개를 숙이다 / 대가를 치르다 / 물에 불리다 / 불편을 덜다 / 손에 쥐다 / 영향을 미치다 / 제를 올리다 / 해석을 내리다

‘면허증을 따다’, ‘차를 빼다’와 같이 실용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문장 전체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어서 학습자들에게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권에 ‘짐을 풀다’, 2권에 ‘귀양을 가다, 웃음이 돌다’ 등 각 단계별로 난이도 조절이 안 되어 있는 단점이 있다.

이화여대 교재 『말이 트이는 한국어』의 장점은 과제 별로 다양한 관련 어휘가 같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학습하는데 더욱 유용하다는 데에 있다.

제 3 절 한국어 교재별 연어 제시의 특징

지금까지 대표적인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7종의 한국어 교재에서 ‘체언+용언’형 연어를 정리·분석하였다.

각 교재마다 연어를 제시하는 방법이 다르고, 제시된 연어의 난이도도 다르다. 또한 제시된 연어가 교재마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각 교재의 연어 제시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16> 각 교재의 연어 제시 양상

교재	특징
경희대	초급에서 연어를 별도로 제시 중급에서 단어와 표현으로 나누어 연어 제시
고려대	1권과 2권에서 일부의 연어 제시 3권부터는 연어를 전혀 제시하지 않음
서강대	다른 교재보다 많은 수의 연어 제시 명사를 중심으로 확장 가능한 연어 제시
서울대	단어와 연어를 함께 제시
성균관대	1~2권은 연어를 제시하지 않음 3~6권은 단어와 연어를 함께 제시
연세대	주제와 관련된 연어를 다수 제시 색인에는 명사를 연어핵으로 연어 활용이 가능함을 제시
이화여대	초급 교재 색인의 ‘표현’ 부분에 연어 제시 중급 교재 색인에 ‘단어, 관용 표현, 표현(연어)’을 분리하여 제시

언어를 따로 구분하여 제시한 교재는 경희대의 초급 교재뿐이며, 다른 교재에서 언어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이유는 언어의 중요성과 언어 학습의 효율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위 교재들을 살펴보면 언어를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시 방법에 일관성이 없고, 단어에 포함시켜서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경희대 교재에서는 다른 교재와 달리 언어를 단어와 분리하여 단어 언어란에서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은 초급에만 적용된다. 성균관대 교재는 1권의 본문에서 언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새 단어를 제시할 때 극히 적은 수의 언어를 제시하고 있어 제시 방법에 일관성이 없다. 연세 교재는 각 급수별 언어의 수가 비슷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본문에서 언어를 확인할 수 있으나, 단어 제시란이나 색인에 제시하지 않는 등 제시 방법이 일관되지 않은 것이 문제점으로 발견되었다. 이화여대 교재는 단어와 표현 부분을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지만, 난이도를 고려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

각 급별로 제시된 언어의 수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7> 각 교재에 제시된 언어의 단계별 학습량

교재명	급수별 제시된 언어의 수			제시된 언어의 총 개수
	초급	중급	고급	
경희대	80개	61개	33개	174개
고려대	46개	0개	0개	46개
서강대	56개	178개	66개	300개
서울대	45개	74개	-	119개
성균관대	22개	48개	21개	91개
연세대	65개	26개	48개	139개
이화여대	115개	44개	10개	226개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체언+용언’형 언어의 수를 살펴보면, 제일 적은 양을 제시한 고려대 『한국어』가 총 46개, 제일 많은 양을 제시한 서강대

『서강 한국어』가 총 300개로 교재별로 큰 차이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단계별로 연어의 제시량을 살펴보면, 경희대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는 초급에서 가장 많은 연어를 제시하였고, 서강대와 서울대, 성균관대는 중급에서 가장 많은 수의 연어를 제시하였다. 서강대 교재의 경우 중급에 너무 많은 연어가 집중되어 있어 학습자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제시량을 분산시켜야 할 것이다.

제시 방법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교재에서 연어를 어휘로 제시하거나 연어로 분리하여 제시하는 등 일관성이 없으며, 본문이나 연습 문제에 연어가 처음 제시됨에도 새 어휘나 색인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전반적으로 연어에 대한 예문이 많지 않고 별도의 연습 문제나 활동이 없어 학습자들이 연어를 생산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도움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다.

이처럼 각 단계별로 제시된 연어의 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서강대와 연세대 교재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에는 연어의 정확한 습득을 위해 의도적, 명시적으로 제시된 경우는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교재에서 연어 제시는 연어 학습을 목적으로 계획적·의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한국어 교재의 경우 우선 일정한 의사소통 기능이 단원 학습 목표로 설정되고, 그 기능에 필요한 문법 표현의 효과적인 제시를 위해 연어가 제시되거나 선정된 제시문 안에서 연어가 우연히 도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새로 나온 어휘의 학습 차원에서 연어의 의미가 명시적으로 제시되는 단계까지 이르는 경우는 있으나 연어 관계에 관한 정보 제공과 연습·활용 및 확장에까지 이르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이는 어휘가 다른 학습 영역의 부차적인 도구로 취급된 결과이다.²⁵⁾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어는 언어 능력의 가장 효과적인 확장 수단이다. 따라서 연어 학습은 반드시 독립적인 학습 영역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25) 조현용(2000:154)에서는 어휘 중심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어휘를 다른 영역 학습의 중심 도구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제 4 장 명사 중심의 연어 교육 연구

이 장에서는 학습자를 위한 연어 목록을 작성하고 이들의 연어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연어 교육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 효과적인 연어 교육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교육의 중심이 되는 교재에서 연어 목록을 추출한 후 연어핵이 되는 명사를 중심으로 각 연어의 교재별 출현 분포와 한국어 연어사전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또한 선정된 명사 어휘들을 중심으로 유의미한 연어 관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어휘 교육 중 연어 교육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명사 어휘의 분포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며, 나아가 교실 현장에서 효과적인 연어 교육을 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이 연구는 다음의 과정을 통해 진행한다.

첫째,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된 연어구성에서 명사를 추출한다.

둘째, 추출된 명사가 이루고 있는 연어 관계의 횟수를 정리하여 고빈도의 연어 관계를 보이는 명사를 선정한다.

셋째, 고빈도의 명사 연어핵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재와 한국어 연어사전을 토대로 연어의 목록을 작성한다.

넷째, 학습용 연어 목록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연어 학습에 대해 제시한다.

제 1 절 명사 중심 연어 교육의 필요성

최근 한국어 교육에서도 기존에 국어학에서 논의된 연구물을 바탕으로 연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어휘 교육에서의 연어 활용 방안과 연어의 교수·학습 방법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어휘적 연어, 그 중에서도 동사나 형용사

를 중심으로 하는 언어 관계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외 유형의 언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언어 연구에 있어 국어학과 한국어 교육 모두 이러한 연구 흐름을 보이고 있다. 용언을 중심으로 한 언어 관계는 문장에서 주요 성분으로 기능하며 한국어에 나타나는 언어의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다양한 학습자의 요구에 맞추어 언어 교육에 있어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학습자들의 한국어 사용 능력 신장의 기초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의 언어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언어 교육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용언형 언어가 서술의 기능을 하고, 제한된 명사군을 선택한다면 명사를 중심으로 하는 언어는 제한된 어휘를 다양한 성분과 결합하여 기존의 언어 영역보다 좀 더 확장된 언어 영역을 실현할 수 있어 한 단계 높은 언어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또 한송화·강현화(2004:304)에서 강조하듯이, 학습자들은 명사에 따른 서술어의 선택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명사를 중심으로 한 언어 구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동안 연구에서는 ‘가다’를 중심으로 ‘학교에, 교회에, 집에...’등의 결합 관계에 관심을 가져 왔으나 이제는 명사를 중심으로 한 결합 관계에 관심을 기울여 ‘약속’을 중심으로 ‘하다, 지키다, 취소하다’ 등의 결합 관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학습자들의 오류가 명사에 의한 서술어 선택 시에 발생한다는 점을 볼 때 명사 중심의 언어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 뿐 아니라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명사 중심의 언어 관계를 다양한 유형으로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다양한 언어 관계 중 명사를 중심으로 한 언어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제 2 절 명사 중심 언어 교육을 위한 명사 추출

명사 중심의 언어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 먼저 한국어 교재에서 정리한 언어를 바탕으로 언어핵을 이루는 명사를 추출한 후 교재에서 드러난 언어 관계를 살펴본다. 한국어 교재를 통해 얻어진 언어 중 명사 언어핵을

중심으로 언어 활용의 빈도를 살펴본다.²⁶⁾

다음은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1,095개의 언어를 토대로 추출한 총 426개의 명사 언어핵 목록이다.

<표 18> 각 교재에 제시된 명사 언어핵

제시 빈도	명사 언어핵	개수
13	시간	1
10	돈	1
9	마음, 전화	2
7	눈(目)	1
6	몸, 힘	2
5	눈(雪), 말, 머리, 문제, 불, 비, 여유, 음식	8
4	갈등, 강의, 고민, 관심, 손, 숨, 스트레스, 약속, 영향, 오해, 용기, 잠, 화	13
3	가치관, 계획, 고개, 구슬, 기분, 기회, 날씨, 눈물, 다리, 단풍, 더위, 마찰, 메시지, 목소리, 물기, 바람, 배, 병, 살, 생각, 소리, 수업, 술, 시험, 아이, 열, 영향, 웃음, 음악, 일, 정성, 조언, 직업, 짐, 차, 컴퓨터	36
2	가방, 감기, 값, 겁, 경기, 고집, 고충, 공기, 기대, 기억, 꿈, 나이, 냄새, 담배, 도둑, 도움, 땀, 맛, 목숨, 목, 목표, 물가, 물, 분위기, 불편, 빛, 사랑, 사진, 성격, 속, 숙제, 습기, 승부, 실력, 안경, 야단, 약, 어깨, 욕심, 운, 울음, 월급, 이, 인기, 인정, 입맛, 입장, 자료, 자신, 전기, 정, 제사, 종, 주사, 주의, 줄, 질문, 짜증, 코, 피해, 해, 핸드폰, 화해, 효과	64
1	가격, 가슴, 가을, 가치, 각광, 감동, 거품, 걸레질, 걸음, 게으름, 견문, 견적, 경의, 경치, 계약, 고기, 고무줄, 고향, 곤혹, 곰팡이, 과목, 과일, 관계, 교훈, 구경, 구두, 구멍, 국도, 그림, 금슬, 기승, 기저귀, 기증, 기타, 깎지, 껌, 피, 꾸중, 나라, 나무, 낙엽, 난방, 날, 납득, 벡타이, 녹, 녹초, 논란, 높이, 눈길, 능청, 다리,	297

26) 같은 언어가 다른 교재에 제시된 경우 동일한 구성으로 보아 빈도에서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감기’는 ‘감기가 낫다’가 한 교재에, ‘감기에 걸리다’가 6개 교재에 제시되어 있지만 ‘감기’의 언어 활용은 ‘-가 낫다, -에 걸리다’만 보이므로 제시 빈도 2에 포함시켰다.

달, 대가, 대상, 대접, 대출, 대회, 덕, 도시락, 돌, 동호회, 두각, 도통, 등지, 들통, 등, 때, 마늘, 마당, 마을, 망신, 맛장구, 매력, 먼지, 메달, 메모, 먹, 면허증, 명복, 명성, 모임, 무게, 무릎, 문, 문제점, 미소, 바둑, 바위, 바이올린, 반지, 발목, 밥, 방귀, 배드민턴, 버릇, 번개, 번호표, 벌, 범벅, 범, 벨, 벼락, 변비, 별, 별, 보고서, 보수, 보험, 복, 볼륨, 부도, 부상, 부작용, 부탁, 불안감, 불판, 비디오, 비밀, 비중, 비판, 빛, 사력, 사업, 사연, 사원, 사이, 상상력, 상투, 상황, 색, 생때, 생일, 성의, 세탁기, 소란, 소매치기, 소식, 소신, 소포, 손뼉, 수다, 수도, 수수료, 술래, 스케이트, 슬럼프, 습관, 시각, 시계, 식욕, 신명, 신문, 신발, 신의, 신청서, 신호, 실력, 실례, 실수, 심부름, 싸움, 아기, 아쉬움, 아이디어, 알, 양탈, 양말, 얘기, 어이, 얼굴색, 엄벌, 엑스레이, 여행, 역사, 연락, 연체료, 옥, 올림픽, 옷, 외모, 외상, 요금, 용돈, 우물, 우산, 운명, 원서, 원, 위로, 위치, 유리, 은혜, 음악회, 의견, 의문, 의심, 의욕, 이름, 이사, 이유, 인라인, 인사, 인연, 일교차, 일정, 자격증, 자신감, 작전, 잔디, 잔치, 잘못, 장가, 장갑, 장례식, 장면, 재미, 재채기, 전보, 절개, 절정, 점검, 점심, 정보, 정책, 정체성, 제, 조의, 조화, 줄음, 종말, 주문, 증명서, 지배, 지원, 진찰, 집, 창의성, 채널, 책임감, 처방전, 천둥, 철, 찻눈, 체구, 체구, 체중, 초대, 초상, 총, 추앙, 추위, 축제, 충혈, 취미, 치성, 침, 카드, 콧물, 큰길, 클로버, 키, 탈, 태풍, 턱, 텐트, 토대, 트집, 파도, 파일, 팔자, 편지, 폐, 표, 피, 핀잔, 핑계, 학교, 한계, 한눈, 한숨, 함성, 해석, 햇빛, 행실, 향, 현실, 협동심, 호감, 호통, 홍수, 화면, 활, 회사, 효성, 후배, 휴가, 흥미	
--	--

언어를 이루는 명사를 선정하여 실제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언어 목록을 선정하고 이들의 언어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어휘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본고의 목적에 따라 언어 관계를 살펴볼 연구대상 어휘는 출현빈도 5이상의 명사로 한정하였다.²⁷⁾

27) 언어 목록에 의해 추출된 426개 명사의 언어 관계를 모두 기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나 연구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상 본고의 연구기준을 세워 연구 대상을 선정하였다. 전체 7종의 한국어교재 중에서 추출된 426개의 명사 중 출현빈도가 5개 미만인 어휘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선정된 어휘는 15개이다. 제외된 명사 언어학의 언어 관계는 부록에서 정리하여 제

연구 분석 대상이 된 어휘는 다음과 같다.

<표 19> 명사 연어핵 목록

번호	명사	번호	명사	번호	명사
1	눈(目)	6	머리	11	시간
2	눈(雪)	7	몸	12	여유
3	돈	8	문제	13	음식
4	마음	9	불	14	전화
5	말(言)	10	비	15	힘

빈도 5이상 연어를 이루는 명사 연어핵 중 ‘눈(目), 머리, 몸’은 사람의 신체기관과 관련된 어휘이고 ‘눈(雪), 비’는 날씨와 관련된 어휘이다. 사람의 신체기관과 날씨에 관련된 어휘는 기초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범주이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생성된 연어 목록은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하는 학습자에게 매우 유용할 것이다. 이외의 ‘마음, 시간, 여유, 힘’과 같은 추상적인 어휘도 포함되어 있다.

제 3 절 명사 중심 연어 관계의 단계화

외국인 학습자에게 있어 연어는 별도의 습득 과정이 필요한 어휘이므로 정확한 의미 차이를 알고 표현하거나 목적에 맞는 사용을 위해서 연어 목록을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학습자는 ‘비’라는 개별 어휘를 문장 안에서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사용하여 원하는 문장을 만들어 표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의미에 따라 최소한 한 가지 결합 관계를 알고 있어야 한다. 이중 한국어 학습자가 상황과 개별 어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학습자가 최소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표현은 ‘비가 오다, 비가 그치다, 비를 맞다’ 정도가 될 것이며 개별 어휘인 ‘비’만을 알고 관련된 연어 표현을 알지 못했을 때

시할 것이다.

는 원하는 언어 사용이 불가능해 진다. 따라서 학습자에게 필요한 언어를 급에 맞추어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목록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사전과 한국어 말뭉치 등을 통해서 필수적인 언어를 선정하고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선정된 명사 언어핵이 한국어 언어 사전, 표준국어대사전,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에 나오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하여 명사 언어핵을 중심으로 한 언어 학습 자료의 근거를 제시하고, 다양한 언어의 학습 순서를 결정할 객관적인 근거를 밝히고자 한다.

명사를 중심으로 한 언어 교육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첫째,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언어 사전²⁸⁾』(2007)의 뜻을 통해 의미를 파악하고, 둘째 『한국어 언어 사전』과 『표준국어대사전』(1999), 『주요 어휘 용례집』을 활용하여 명사를 기준으로 한 결합 구성을 살펴봄으로써 언어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교육 기초 어휘 의미 빈도 사전』(2000)을 바탕으로 명사 언어핵의 의미별 사용 빈도와 난이도를 고려하여 학습의 순서를 정하여 실제적인 언어 목록을 제시하고자 한다.²⁹⁾

1. ‘눈(目)’의 교육 자료 분석 및 언어 관계

먼저 『한국어 언어 사전』(2007)에 등재된 ‘눈(目)’의 의미와 제시된 순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8) 이후 『한국어 언어 사전』으로 칭함

29) 각 단계에 적절한 언어를 조절하는 기준은 “한국어 교육 기초 어휘 의미 빈도 사전의 개발” 사업 보고서(2000)에서 제시된 “기초 어휘 의미 빈도 사전”을 참고하였다. 한국어 교육용 말뭉치 100만 어절에서 추출된 어휘 빈도로 각 의미 항목의 출현 횟수와 의미 빈도의 어휘의 품사별 빈도에 대한 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다양한 언어 중 고빈도로 사용하는 언어만을 추출한 후 이를 『등급별 국어교육용 어휘』와 사용용법에 따라 학습단계를 구분하였다. 다음 표는 책에서 제시된 등급별 어휘의 상황이다.

어휘량	제시등급	한국어교육용구분	개념
1,845	1	초급	자국인과 어휘량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조절함
4,245	2	중급	
8,358	3	고급	
19,377	4		

<‘눈(目)’의 사전 뜻풀이>

- ① 빛을 받아 물체를 볼 수 있는 동물의 신체 기관
- ② 시력
- ③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능력
- ④ 어떤 사물을 보는 태도
- ⑤ 사람들의 시각이나 판단, 감시
- ⑥ 시선

‘눈(目)’은 신체 기관을 뜻하는 기본 의미와 함께 다섯 개의 파생 의미를 가진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연어 사전』과 『표준국어대사전』, 『주요 어휘 용례집』의 용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0> ‘눈(目)’의 연어 관계

		한국어 연어 사전	표준국어대사전	기초 어휘 의미 빈도 사전
①	눈이	돌다, 뒤집히다, 맑다, 반짝거리다, 무시다, 붓다, 빛나다, 시리다, 충혈 되다, 벌겋다, 초롱초롱하다, 침침하다, 크다	맑다, 초롱초롱하다	휘둥그레지다, 뒤집히다, 벌겋다
	눈을	감다, 깜박이다, 깜박하다, 뜨다, 반짝거리다, 부라리다, 부릅뜨다, 붙이다, 비비다, 찢고 보다, 찡긋하다	뜨다, 감다, 부라리다, 흘기다	감다, 뜨다, 뒤집다, 붙이다, 속이다, 찢다, 붙히다
	눈에	띄다, 보이다, 선하다, 설다, 아른거리다		거슬리다, 넣다, 밝히다, 어리다
②	눈이	나쁘다, 밝다, 어둡다, 좋다	좋다, 밝다, 나쁘다	나쁘다, 멀다, 빠다, 어둡다, 익다
	눈에			설다, 익다
③	눈이	나쁘다, 낮다, 높다, 어둡다, 없다, 있다,	정확하다	다르다, 트이다

		정확하다, 좋다, 트이다, 흐리다		
	눈에			
	눈을			
④	눈으로	바라보다, 보다	바라보다, 보다	
⑤	눈이	많다, 무섭다	무섭다	
	눈에			들다
	눈을	속이다, 의식하다, 피하다	의식하다	번쩍이다
⑥	눈이	가다, 마주치다, 맞다, 팔리다		맞다, 팔리다
	눈을	끌다, 돌리다, 떼다, 맞추다, 보내다, 주다, 흘기다		돌리다, 맞추다, 주다, 팔다

한국어 교재에서는 [①감각기관]의 의미에서 ‘띄다, 선하다, 감다, 뜨다, 부시다’와 [②시력]에서 ‘나빠지다’, [⑥시선]에서 ‘돌리다’만이 제시되어 있다. 명사 연어핵 ‘눈’은 여러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초급에서 중·고급으로 올라가면서 학습자에게 이를 인식시켜야 하며, ‘눈’의 기본 의미와 함께 다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할 것이다. 기본 의미에서 파생된 새로운 의미들의 경로를 설명함과 동시에 예문을 제시해야 한다. 초급의 경우 기본 의미를 중심으로 연어를 이해해야 하지만 학습 단계가 높아질수록 명사의 여러 의미를 비교하여 파악하면서 이와 결합하는 연어를 학습하면 어휘 확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기본 의미를 가장 우선시 교육하여야 하고, 파생 의미 중에서는 기본 의미에서 가까운 것부터 우선 순위로 잡아야 한다. 다음 <표 21>는 ‘눈’의 학습 내용을 총괄하여 학습 단계별로 분류한 것이다.

<표 21> ‘눈(目)’의 학습 단계별 학습 내용³⁰⁾

학습단계	사전의미	연어	의미
초급	감각기관	눈을 뜨다	감았던 눈을 벌리다

30) 한국인 화자의 사용 빈도와 어휘 등급에 따라서 학습 단계를 나누었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초급-중급-고급의 경계를 점선으로 표시한 것은 이 구분이 유동적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시력	눈을 감다	눈꺼풀을 내려 눈동자를 덮다
		눈이 나쁘다	시력이 좋지 아니하다
		눈이 좋다	시력이 보통 이상의 수준이다
		눈이 멀다	시력을 잃다
중급	판단력	눈이 어둡다	(나이가 많아서) 시력이 나쁘다
		눈이 다르다	판단력이 보통의 것보다 두드러지다
		눈을 돌리다	다른 쪽으로 생각을 바꾸다
		눈을 맞추다	서로 뜻이 통하여 마주보다
고급	태도	눈을 주다	시선을 보내다
		눈에 들다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좋게 받아들여지다
		판단할 수 있는 범위	
		눈에 들어오다	물체를 눈으로 판단하다

2. ‘눈(雪)’의 교육 자료 분석 및 연어 관계

『한국어 연어 사전』(2007)에 등재된 ‘눈(雪)’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눈(雪)’의 사전 뜻풀이>

- 공기 중의 수증기가 얼어서 땅으로 떨어지는 결정체

‘눈(雪)’은 얼음의 결정체를 뜻하는 기본 의미만을 가진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연어 사전』과 『표준국어대사전』, 『주요 어휘 용례집』의 용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2> ‘눈(雪)’의 연어 관계³¹⁾

	한국어 연어 사전	표준국어대사전	기초 어휘 의미 빈도 사전
눈이	그치다, 내리다, 녹다, 덮 이다, 뗏다, 쌓이다, 오다	내리다, 쌓이다, 녹 다, 덮이다	덮이다, 뗏다
눈을	쓸다, 치우다	쓸다	

31) 연어 용례는 문장형이기 때문에 명사 연어핵과 항상 조사가 함께 쓰인다. 따라서 연어의 용례는 조사를 포함하여 제시한다.

한국어 교재에서는 ‘치우다, 그치다, 쌓이다, 오다’가 제시되어 있다. 위의 <표 22>에서 제시된 용례 중 명사 언어핵인 ‘눈(雪)’의 학습 내용을 총괄하여 학습 단계별로 분류한 것이다.

<표 23> ‘눈(雪)’의 학습 단계별 학습 내용

학습단계	언어	의미
초급	눈이 오다	눈이 내리거나 닥치다
	눈이 내리다	눈 따위가 오다
	눈이 쌓이다	눈이 차곡차곡 포개어지다
	눈이 그치다	눈이 오던 것이 멈추거나 끝나다
	눈이 녹다	눈이 열을 받아 액체가 되다
	눈이 쏟아지다	눈이 많이 또는 강하게 내리거나 비치다
중급	눈이 덮이다	눈이 일정한 범위나 공간에 얹어있다
	눈을 맞다	자연 현상에 따라 내리는 눈의 닿음을 받다
고급	눈이 몇다	눈이 오는 것이 멈추다

3. ‘돈’의 교육 자료 분석 및 언어 관계

『한국어 언어 사전』(2007)에 등재된 ‘돈’의 의미와 제시된 순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돈’의 사전 뜻풀이>

- ① 무엇의 가치를 나타내는, 종이나 쇠로 된 물건
- ② 재물이나 재산

<표 24> ‘돈’의 언어 관계

		한국어 언어 사전	표준국어대사전	기초 어휘 의미 빈도 사전
①	돈이	들다, 생기다, 아깝다, 모자라다	생기다, 들다	
	돈을	마련하다, 모으다, 벌 다, 갚다, 꾸다, 대다,	모으다, 벌다, 갚 다, 생기다, 쓰다,	받다, 내다

		받다, 빌리다, 주다, 걸다, 내다, 세다, 쓰다, 잃다, 지불하다, 찾다	세다, 빌리다, 치르다, 지불하다	
②	돈이	많다, 없다, 있다	많다	없다, 멀다, 찍어나다
	돈을			굴리다, 까먹다, 만지다, 먹다, 뿌리다, 돌다

한국어 교재에서는 ‘걸다, 내다, 들이다, 따다, 벌다, 쓰다, 아끼다, 잃다, 찾다, 돌다’가 제시되어 있다. 위의 <표 24>에서 제시된 용례 중 명사 언어핵인 ‘돈’의 학습 내용을 총괄하여 학습 단계별로 분류한 것이다.

<표 25> ‘돈’의 학습 단계별 학습 내용

학습단계	언어	의미
초급	돈을 모으다	돈을 써 버리지 않고 쌓아 두다
	돈을 쓰다	어떤 일을 하는 데에 돈을 이용하다
	돈이 들다	어떤 일에 돈이 쓰이다
	돈을 내다	돈을 주거나 바치다
	돈을 찾다	맡기거나 빌려 주었던 돈을 돌려받아 가지다
	돈을 벌다	일을 하여 돈을 얻거나 모으다
	돈을 꾸다	뒤에 다시 갚기로 하고 남의 돈을 얼마간 빌려 쓰다
	돈을 갚다	남에게 빌리거나 꾸 돈을 도로 돌려주다
중급	돈을 굴리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얻다
고급	돈을 지불하다	돈을 내어 주다, 값을 치르다

4. ‘마음’의 교육 자료 분석 및 언어 관계

『한국어 연어 사전』(2007)에 등재된 ‘마음’의 의미와 제시된 순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마음’의 사전 뜻풀이>

- ①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품성
- ②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느끼거나 가지는 태도
- ③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는 곳
- ④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하여 가지는 관심

<표 26> ‘마음’의 연어 관계

		한국어 연어 사전	표준국어대사전	기초 어휘 의미 빈도 사전
①	마음이	곱다, 나쁘다, 넓다, 따뜻하다, 좋다	좋다, 어질다	
	마음을		갓다	
②	마음이	가볍다, 간절하다, 개 운하다, 급하다, 돌아 서다, 무겁다, 불안하 다, 생기다, 쓰이다, 아프다, 통하다, 편하 다, 풀리다	청춘이다	뒤숭숭해지다, 무겁 다
	마음을	가다듬다, 가라앉히다, 다잡다, 먹다, 삭이다, 열다, 잡다, 졸이다, 주다, 진정하다, 풀다		
③	마음이	상쾌하다		
	마음을	쓰다	비우다	
	마음에	담아두다	담다, 갓다	
④	마음이	가다, 끌리다, 내키다, 담기다, 들다, 앞서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돌아서다, 맞다, 놓 이다, 가다, 가볍다, 들뜨다, 비다, 쓰이 다, 약하다
	마음을	끌다, 붙이다, 사로잡 다, 움직이다, 주다, 떠보다, 바꾸다, 비우 다, 사다, 열다, 이해 하다, 정하다	떠보다, 먹다	굳히다, 놓다, 다잡 다, 돌리다, 비우다, 사다, 쓰다, 잡다, 졸이다, 주다

	마음에	거리끼다, 걸리다, 남다, 두다, 들다, 맞다, 차다	들다	걸리다, 들다, 얹다, 차다
--	-----	-------------------------------	----	-----------------

한국어 교재에서는 ‘두다, 들다, 나누다, 먹다, 열다, 줄이다, 넓다, 무겁다, 생기다’가 제시되어 있다. 위의 <표 26>에서 제시된 용례 중 명사 언어핵인 ‘마음’의 학습 내용을 총괄하여 학습 단계별로 분류한 것이다.

<표 27> ‘마음’의 학습 단계별 학습 내용

학습단계	언어	의미
초급	마음이 넓다	마음 쓰는 것이 크고 너그럽다
	마음에 들다	자기의 느낌이나 생각과 일치하여 좋아하다
	마음을 놓다	안심하다. 걱정하지 않다.
	마음을 돌리다	생각을 바꾸다
	마음을 쓰다	관심을 기울이고 생각을 주다
	마음이 무겁다	걱정스럽다
	마음이 약하다	결심이 단단하지 못하다
	마음을 주다	(누구를) 좋아하게 되다
	마음을 잡다	결심하다. 생각을 집중하다
	마음에 걸리다	거리끼게 느껴지다. 불안하게 느껴지다
	마음을 굳히다	결심하다
중급	마음이 쓰이다	걱정이 되다
	마음이 돌아서다	생각이나 태도가 다른 쪽으로 바뀌다
	마음을 비우다	사심이나 욕심 따위가 없게 하다
고급	마음이 들뜨다	생각이 안정되지 않다
	마음을 줄이다	매우 조마조마하여 걱정하다

5. ‘말(言)’의 교육 자료 분석 및 언어 관계

『한국어 연어 사전』(2007)에 등재된 ‘말(言)’의 의미와 제시된 순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말(言)’의 사전 뜻풀이>

- ① 무슨 뜻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사람의 목소리나 그것을 적은 글자
- ② 이야기나 대화

<표 28> ‘말(言)’의 연어 관계

		한국어 연어 사전	표준국어대사전	기초 어휘 의미 빈도 사전
①	말이	끓기다, 끝나다, 나오다, 느리다, 돌다, 들리다, 등장하다, 떠오르다, 떨어지다, 막히다, 많다, 빠르다, 새어나오다, 생겨나다, 서투르다, 성립되다, 쉽다, 쓰이다, 어렵다, 없다, 유행하다, 적다, 튀어나오다	들리다, 거칠다, 느리다, 빠르다, 퍼지다	나오다
	말을	건네다, 걸다, 기다리다, 꺼내다, 끓다, 끝내다, 남기다, 내뱉다, 던지다, 듣다, 따르다, 막다, 만들다, 맺다, 멈추다, 못하다, 바꾸다, 반복하다, 배우다, 뱉다, 붙이다, 사용하다, 소개하다, 시키다, 쓰다, 엿듣다, 익히다, 인용하다, 잃다, 입에 올리다, 잇다, 잇다, 잘하다, 주고받다, 중얼거리다, 하다, 흉내 내다, 흐리다	가르치다, 배우다, 놓다, 건네다, 꺼내다, 찾다	바꾸다, 없애다,
	말이	과장되다, 길다, 나다, 나돌다, 나오다, 다르		없다, 나다, 되다, 통하다

		다, 돌다, 되다, 뒤바뀌다, 들려오다, 많다, 맞다, 믿기다, 사실이 다, 생각나다, 수상쩍 다, 안 되다, 없다, 오 가다, 옳다, 있다, 통 하다		
	말을	끓다, 나누다, 듣다, 만들다, 묻다, 받다, 알아듣다, 요약하다, 의심하다, 읽다	찾다, 없다	듣다, 건네다, 붙이 다, 걸다, 꺼내다, 난다, 놓다, 높이다, 던지다, 돌리다, 듣 다, 맞추다, 뺄다, 미치다, 자르다, 주 고받다, 주워섬기다

한국어 교재에서는 ‘건네다, 걸다, 시키다, 나오다, 통하다’가 제시되어 있다. 위의 <표 28>에서 제시된 용례 중 명사 연어핵인 ‘말’의 학습 내용을 총괄하여 학습 단계별로 분류한 것이다.

<표 29> ‘말(言)’의 학습 단계별 학습 내용

학습단계	연어	의미
초급	말이 나오다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사람의 목소리
	말이 없다	말수가 적다
	말을 꺼내다	말을 시작하다
	말을 나누다	대화하다
	말을 듣다	시키는 대로 하다
	말이 되다	이치에 맞다
	말이 통하다	의사소통이 되다, 서로 뜻이 맞다
중급	말을 건네다	상대방에게 말을 하다
	말을 높이다	존댓말을 하다
	말을 주고받다	대화를 하다
	말을 돌리다	하던 말을 그만두고 다른 내용의 말로 바꾸다. 우회 적으로 이야기하다

6. ‘머리’의 교육 자료 분석 및 연어 관계

『한국어 연어 사전』(2007)에 등재된 ‘머리’의 의미와 제시된 순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머리’의 사전 뜻풀이>

- ① 동물의 목 위의 부분
- ②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등의 정신적 능력
- ③ 머리털

<표 30> ‘머리’의 연어 관계

		한국어 연어 사전	표준국어대사전	기초 어휘 의미 빈도 사전
①	머리가	깨지다, 무겁다, 아프다, 어지럽다, 작다, 커지다, 크다	아프다	
	머리를	가로젓다, 긁다, 끄덕이다, 내밀다, 들다, 때리다, 만지다, 부딪히다, 숙이다, 싸매다, 젓다, 조아리다, 치박다, 흔들다	긁다, 다치다, 숙이다, 가우뚱거리다	숙이다, 흔들다, 끄덕이다, 내두르다, 내젓다, 맞대다, 모으다, 조아리다, 흔들다
	머리에	쓰다, 엮다, 이다	쓰다	엮다, 대다
②	머리가	돌다, 돌아가다, 나쁘다, 맑아지다, 복잡하다, 비다, 영리하다, 좋다	나쁘다, 좋다, 둔하다, 뛰어나다	영리하다, 좋다, 나쁘다, 굳다, 깨다, 돌아가다, 깨끗해지다, 가볍다, 무겁다, 멍하다, 멍해지다, 복잡하다, 돌다, 건전하다, 돌아가다
	머리를	굴리다, 식히다, 쓰다	씩히다	굴리다, 쓰다, 정리하다, 쥐어짜다, 스

				치다, 식히다, 돌리다, 들다, 싸매다, 쓰다, 정리하다, 쥐어짜다
	머리에	그리다, 남다, 떠오르다, 떠올리다		떠오르다, 그리다, 들어오다
	머리로	이해하다		
③	머리가	길다, 벗겨지다, 빠지다, 뿔히다, 세다, 짧다, 하얗다, 희다	길다, 노랗다, 덥수룩하다	빠지다
	머리를	밀다, 감다, 기르다, 깎다, 꿇다, 만지다, 말리다, 매만지다, 묵다, 빗다, 손질하다, 염색하다, 자르다, 파마하다, 풀다, 하다, 행구다	기르다, 감다, 빗다, 자르다	깎다, 지지다, 볶다, 하다

한국어 교재에서는 신체부위의 의미인 1번 의미에서 ‘이다’와 판단하는 능력인 2번 의미에서 ‘식히다’, 그리고 머리털을 의미하는 3번에서 ‘감다, 깎다, 자르다’가 제시되어 있다. 위의 <표 30>에서 제시된 용례 중 명사 연어핵인 ‘머리’의 학습 내용을 총괄하여 학습 단계별로 분류한 것이다.

<표 31> ‘머리’의 학습 단계별 학습 내용

학습단계	언어	의미
초급	머리가 가볍다	기분이나 몸이 상쾌하다
	머리가 무겁다	기분이나 몸이 좋지 않다
	머리를 모으다	여럿이 함께 의논하다
	머리에 떠오르다	얼핏 생각이 떠오르다
	머리를 쓰다	어떤 문제에 대해 이리저리 고민하다
중급	머리를 식히다	복잡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다
	머리를 굴리다	묘안을 생각하다

	머리를 숙이다 머리를 스치다	부끄러워하거나 겸손한 태도를 취하다 얼핏 생각이 떠오르다
고급	머리를 싸매다	어떤 한 가지 일에 집중적으로 열중하다

7. ‘몸’의 교육 자료 분석 및 연어 관계

『한국어 연어 사전』(2007)에 등재된 ‘몸’의 의미와 제시된 순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몸’의 사전 뜻풀이>

- ①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이루는 전체
- ② 물건의 기본을 이루는 동체
- ③ 그러한 신분이나 사람임

<표 32> ‘몸’의 연어 관계

		한국어 연어 사전	표준국어대사전	기초 어휘 의미 빈도 사전
①	몸이	가냘프다, 건강하다, 건장하다, 고단하다, 나른하다, 마르다, 불 편하다, 비대하다, 수 시다, 아프다, 약하다, 작다, 크다, 튼튼하다, 허약하다	크다, 건강하다, 좋다	좋다, 가볍다, 허락 하다
	몸을	가누다, 감싸다, 던지 다, 돌리다, 뒤척이다, 떨다, 숨기다, 씻다, 움직이다, 일으키다, 회복하다		떨다, 담다, 던지다, 말기다, 바치다, 버 리다, 빼다, 사리다, 섞다, 팔다, 풀다
	몸에	걸치다, 꼭 끼다, 꼭 맞다, 나쁘다, 달라붙		배다, 익히다

		다, 맞다, 배다, 이롭다, 익히다, 좋다, 좋지 않다, 지니다, 해롭다		
	몸으로	느끼다, 실감하다, 체험하다, 태어나다, 터득하다, 표시하다		때우다
②	몸이		남다	
③	몸이	되다		
	몸으로	오다, 참여하다, 하다		

한국어 교재에서는 ‘좋다, 가꾸다, 담그다, 떨리다, 붓다, 약하다’가 제시되어 있다. 위의 <표 32>에서 제시된 용례 중 명사 연어핵인 ‘말’의 학습 내용을 총괄하여 학습 단계별로 분류한 것이다.

<표 33> ‘몸’의 학습 단계별 학습 내용

학습단계	연어	의미
초급	몸을 떨다 몸을 버리다 몸이 가볍다 몸을 담다	몹시 흥분하다 건강을 해치다 몸의 상태가 좋다 어떤 직장이나 일에 종사하다
중급	몸을 맡기다 몸에 익히다 몸에 배다 몸으로 때우다	의지하다 어떤 것을 배워서 익숙해지다 습관이 되다. 익숙해지다 육체적인 인을 하다
고급	몸이 허락하다 몸을 사리다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다 행동을 조심하다

8. ‘문제’의 교육 자료 분석 및 연어 관계

『한국어 연어 사전』(2007)에 등재된 ‘문제’의 의미와 제시된 순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제’의 사전 뜻풀이>

- ① 해답을 요구하거나 해결해야 하는 물음
- ② 해결하기 어려운 일

<표 34> ‘문제’의 연어 관계

		한국어 연어 사전	표준국어대사전	기초 어휘 의미 빈도 사전
①	문제가	난해하다, 쉽다, 어렵다	쉽다, 어렵다, 거론되다	
	문제를	내다, 맞히다, 못 풀다, 출제하다, 틀리다, 풀다	내다, 풀다	풀다
②	문제가	되다, 많다, 생기다, 심각하다, 없다, 일어나다, 있다, 존재하다, 크다, 해결되다, 확대되다	생기다	극심하다, 되다, 생기다, 있다, 없다
	문제를	거론하다, 논의하다, 다루다, 야기하다, 일으키다, 풀다, 해결하다	해결하다, 일으키다	안다
	문제에	깊이 들어가다, 당면하다, 부딪히다	부딪히다	

한국어 교재에서는 ‘생기다, 내다, 일으키다, 풀다, 해결하다’가 제시되어 있다. 위의 <표 34>에서 제시된 용례 중 명사 연어핵인 ‘문제’의 학습 내용을 총괄하여 학습 단계별로 분류한 것이다.

<표 35> ‘문제’의 학습 단계별 학습 내용

학습단계	연어	의미
초급	문제가 있다	완전하지 않은 점이 있다
	문제가 없다	걱정할 것 없다

	문제를 내다 문제를 틀리다 문제를 풀다 문제가 생기다 문제가 되다	문제가 실리다 문제가 그르게 되거나 어긋나다 모르거나 복잡한 것을 알아내거나 해결하다 없던 문제가 새로 있게 되다 문제인 상태에 놓이다
중급	문제가 심각하다 문제가 해결되다	문제의 상태가 매우 깊고 중대하다 제기된 문제가 해명되거나 얽힌 일이 잘 처리되다
고급	문제를 출제하다 문제를 맞히다 문제를 거론하다 문제에 당면하다	문제를 내다 문제에 대한 답이 틀리지 아니하다 문제를 논제로 삼아 제기하거나 논의하다 문제를 바로 눈앞에 당하다

9. ‘불’의 교육 자료 분석 및 연어 관계

『표준국어대사전』(1999)에 등재³²⁾된 ‘불’의 의미와 제시된 순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불’의 사전 뜻풀이>

- ① 물질이 산소와 화합하여 높은 온도로 빛과 열을 내면서 타는 것
- ② ‘화재(火災)’를 이르는 말
- ③ 빛을 내어 어둠을 밝히는 물체
- ④ 불이 타는 듯이 열렬하고 거세게 타오르는 정열이나 감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표 36> ‘불’의 연어 관계

		표준국어대사전	기초 어휘 의미 빈도 사전
①	불이	불다	
	불에	타다, 데다	익히다
	불을	때다, 뿔다, 지피다, 피우다	

32) 명사 연어핵 ‘불’은 『한국어 연어 사전』에 등재되지 않아 의미를 『표준국어대사전』의 것으로 대체하였다.

②	불이	나다	
	불을	지르다, 조심하다, 끄다, 잡다	끄다
③	불이	들어오다, 나가다, 환하다	
	불을	밝히다, 끄다, 켜다	끄다
④	불이	붙었다	

한국어 교재에서는 ‘데다, 끄다, 때다, 피우다, 나다’가 제시되어 있다. 위의 <표 36>에서 제시된 용례 중 명사 연어핵인 ‘불’의 학습 내용을 총괄하여 학습 단계별로 분류한 것이다.

<표 37> ‘불’의 학습 단계별 학습 내용

학습단계	연어	의미
초급	불을 끄다	타는 불을 못 타게 하다
	불이 나다	자연재해가 일어나다
	불을 피우다	연탄이나 숯 파위에 불이 일어나 스스로 타다
중급	불을 지피다	아궁이나 화덕 파위에 땔나무를 넣어 불을 붙이다
	불을 지르다	물을 붙이다
고급	불에 데다	불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살이 상하다

10. ‘비’의 교육 자료 분석 및 연어 관계

『한국어 연어 사전』(2007)에 등재된 ‘비’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비’의 사전 뜻풀이>

- 뭉친 수증기가 하늘에서 내리는 현상

<표 38> ‘비’의 연어 관계

	한국어 연어 사전	표준국어대사전	기초 어휘 의미 빈도 사전
비가	개다, 그치다, 내리다, 들이 치다, 멈추다, 멎다, 뿌리 다, 새다, 쏟아 붓다, 쏟아	그치다, 내리다, 들이치다, 개다, 퍼붓다, 내린다,	오다

	지다, 오락가락하다, 퍼붓다, 흠뿌리다	적신다	
비를	기다리다, 내리다, 만나다, 맞다, 뿌리다, 퍼붓다, 피하다	뿌리다, 맞다, 만나다	맞다
비에	씻기다, 젖다	젖다	

한국어 교재에서는 ‘오다, 그치다, 맞다, 내리다, 퍼붓다’가 제시되어 있다. 위의 <표 38>에서 제시된 용례 중 명사 연어핵인 ‘비’의 학습 내용을 총괄하여 학습 단계별로 분류한 것이다.

<표 39> ‘비’의 학습 단계별 학습 내용

학습단계	연어	의미
초급	비가 오다	비가 내리거나 닥치다
	비가 그치다	비가 오던 것이 멈추거나 끝나다
	비가 내리다	비가 오다
	비를 피하다	비를 맞지 않게 몸을 옮기다
중급	비를 맞다	비 따위의 닿음을 받다
	비가 개다	흐리거나 궂은 날씨가 맑아지다
고급	비가 들이치다	비가 안쪽으로 뿌리다
	비가 퍼붓다	비가 억세게 마구 쏟아지다

11. ‘시간’의 교육 자료 분석 및 연어 관계

『한국어 연어 사전』(2007)에 등재된 ‘시간’의 의미와 제시된 순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간’의 사전 뜻풀이>

- ① 한 시각에서 다른 시각까지의 사이
- ② 어떤 행동을 할 틈

<표 40> ‘시간’의 연어 관계

		한국어 연어 사전	표준국어대사전	기초 어휘 의미 빈도 사전
①	시간이	가다, 걸리다, 흐르다	걸리다	
	시간을	기다리다, 낭비하다, 들이다, 벌다, 보내다, 소비하다, 아끼다, 절 약하다, 지키다, 쪼개 다, 허비하다	보내다, 지키다	
②	시간이	나다, 많다, 없다, 있 다	없다, 나다	있다, 없다, 나다
	시간을	내다		내다

한국어 교재에서는 ‘쫓기다, 관리하다, 내다, 들이다, 때우다, 걸리다, 나다, 빠듯하다, 생기다, 없다, 있다, 지나다, 흐르다’가 제시되어 있다. 위의 <표 40>에서 제시된 용례 중 명사 연어핵인 ‘시간’과 연어 관계를 이루는 목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 ‘시간’의 학습 단계별 학습 내용

학습단계	연어	의미
초급	시간이 가다	시간이 지나거나 흐르다
	시간이 걸리다	시간이 소요되다
	시간을 보내다	시간이나 세월을 지나가게 하다
	시간을 지키다	시간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실행하다
	시간이 나다	시간적 여유가 생기다
	시간이 많다	시간이 일정한 기준을 넘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시간을 벌다	시간이나 돈을 안 쓰게 되어 여유가 생기다
고급	시간을 쪼개다	시간을 아끼다

12. ‘여유’의 교육 자료 분석 및 연어 관계

『한국어 연어 사전』(2007)에 등재된 ‘여유’의 의미와 제시된 순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유’의 사전 뜻풀이>

- ① 시간, 공간, 물질이 넉넉함
- ② 서두르지 않고 느그롭게 생각하는 마음

<표 42> ‘여유’의 연어 관계

		한국어 연어 사전	표준국어대사전
①	여유가	많다, 생기다, 없다, 있다, 충분하다	없다, 있다
	여유를	갖다, 두다	갖다
②	여유가	많다, 생기다, 없다, 있다, 충분하다	있다, 만만하다
	여유를	갖다, 두다	두다, 부리다

한국어 교재에서는 ‘많다, 생기다, 없다, 있다, 부리다’가 제시되어 있다. 위의 <표 42>에서 제시된 용례 중 명사 연어핵인 ‘여유’의 학습 내용을 총괄하여 학습 단계별로 분류한 것이다.

<표 43> ‘여유’의 학습 단계별 학습 내용

학습단계	연어	의미
초급	여유가 생기다	여유가 없던 것이 새로 있게 되다
중급	여유를 부리다	여유를 계속 드러내거나 보이다

13. ‘음식’의 교육 자료 분석 및 연어 관계

『한국어 연어 사전』(2007)에 등재된 ‘음식’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음식’의 사전 뜻풀이>

- 먹을 수 있도록 만든 먹을거리

<표 44> ‘음식’의 연어 관계

	한국어 연어 사전	표준국어대사전
음식이	나오다, 담기다, 맛있다, 입에 맞다	입에 맞다
음식을	권하다, 나누다, 남기다, 내놓다, 담다, 대접하다, 들다, 만들다, 맛보다, 먹다, 익히다, 잡수시다, 장만하다, 차리다	장만하다, 차리다, 먹다, 대접하다, 남기다

한국어 교재에서는 ‘나누다, 내놓다, 시키다, 상하다, 맞추다’가 제시되어 있다. 위의 <표 44>에서 제시된 용례 중 명사 연어핵인 ‘음식’의 학습 내용을 총괄하여 학습 단계별로 분류한 것이다.

<표 45> ‘음식’의 학습 단계별 학습 내용

학습단계	연어	의미
초급	음식이 나오다	음식이 일정한 목적으로 어떠한 곳에 오다
	음식을 시키다	음식 따위를 만들어 오거나 가지고 오도록 하다
	음식을 맞추다	일정한 규격의 음식을 만들도록 미리 주문하다
중급	음식을 권하다	음식을 먹도록 부추기다
	음식을 차리다	음식을 장만하여 먹을 수 있게 상 위에 벌이다
고급	음식을 대접하다	음식을 차려 접대하다

14. ‘전화’의 교육 자료 분석 및 연어 관계

『한국어 연어 사전』(2007)에 등재된 ‘전화’의 의미와 제시된 순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화’의 사전 뜻풀이>

- ① 전화기로 말을 주고받음
- ② 전화기

<표 46> ‘전화’의 연어 관계

		한국어 연어 사전	표준국어대사전	기초 어휘 의미 빈도 사전
①	전화가	없다, 개통되다, 걸려 오다, 빗발치다, 오다	오다	오다
	전화를	걸다, 기다리다, 끊다, 넣다, 도청하다, 드리 다, 바꾸다, 받다, 하 다	걸다, 끊다, 넣다, 받다	
	전화로	예약하다	예약하다	
②	전화가	불통되다		
	전화를	놓다, 들다, 보급하다, 밀리다, 설치하다, 이 용하다	놓다	

한국어 교재에서는 ‘걸리다, 끊기다, 오다, 걸다, 끊다, 바꿔 주다, 받다, 주다’가 제시되어 있다. 위의 <표 46>에서 제시된 용례 중 명사 연어핵인 ‘전화’의 학습 내용을 총괄하여 학습 단계별로 분류한 것이다.

<표 47> ‘전화’의 학습 단계별 학습 내용

학습단계	연어	의미
초급	전화가 오다	소식이나 연락 따위가 말하는 사람이 있는 곳 으로 전하여지다
	전화를 걸다	전화를 하다
	전화를 끊다	전화 통화의 송수신을 멈추게 하다
	전화를 받다	전화에 응하다
고급	전화가 빗발치다	어떤 의사를 나타내는 일이 끊이지 않고 계속 되다
	전화가 불통되다	전화가 서로 통하지 아니하다

15. ‘힘’의 교육 자료 분석 및 연어 관계

『표준국어대사전』(1999)에 등재³³⁾된 ‘불’의 의미와 제시된 순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힘’의 사전 뜻풀이>

- ① 사람이나 동물이 몸에 갖추고 있으면서 스스로 움직이거나 다른 물건을 움직이게 하는 근육 작용
- ② 일이나 활동에 도움이나 의지가 되는 것
- ③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
- ④ 개인이나 단체를 통제하고 강제적으로 따르게 할 수 있는 세력이나 권력

<표 48> ‘힘’의 연어 관계

		표준국어대사전	기초 어휘 의미 빈도 사전
①	힘이	세다, 약하다	
	힘을	빼다, 겨루다	가하다, 쓰다
②	힘이	되다	되다
	힘을	빌리다	빌리다
③	힘을	합치다, 기울이다	
④	힘에		무너지다

한국어 교재에서는 ‘쓰다, 주다, 들다, 생기다, 세다, 없다’가 제시되어 있다. 위의 <표 48>에서 제시된 용례 중 명사 연어핵인 ‘힘’의 학습 내용을 총괄하여 학습 단계별로 분류한 것이다.

33) 명사 연어핵 ‘힘’은 『한국어 연어 사전』에 등재되지 않아 ‘불’과 마찬가지로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로 대체하였다.

<표 49> ‘힘’의 학습 단계별 학습 내용

학습단계	언어	의미
초급	힘을 쓰다 힘을 주다	남의 어려운 형편을 도와주다 강조하다
중급	힘이 부치다	감당하기 어렵게 되다

이렇게 각 단계별로 명사를 중심으로 한 언어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초급에서는 빈도수가 높고, 난이도가 낮은 기본 어휘로 이루어진 언어로, 중급에서는 초급에서의 언어를 확장시키면서 조금 더 어려운 언어로, 고급에서는 좀 더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 언어로 선정하였다.

위에서 정리한 언어 목록을 활용하면 확장 활용이 가능한 언어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초급에서 학습한 명사를 중심으로 중·고급 어휘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언어 목록을 제시해 준다면 더욱 본격적이고 다양한 언어 학습이 가능할 것이다.

제 4 절 명사 중심 언어 교육 방안

어휘가 어떤 연결 관계를 갖는지 파악하지 못하면 학습자는 어휘의 의미를 알고 있어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 교사는 학습자의 어휘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언어 지식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 어휘를 교육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의 하나로 언어를 활용한 교육이 이루어져 어휘의 쓰임을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에 다양한 언어 학습법이 이용될 수 있다.

기존의 교재는 새로운 어휘를 학습할 때 어휘 결합 관계나 활용 등의 양상을 보여주지 않고 단순히 ‘새 단어’만을 제시한다. 언어 학습은 학습자가 단어를 학습하고 표현할 때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교재에서의 제시나 별도의 언어 학습은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

서는 더욱 효과적인 연어 학습을 위해서 명사를 중심으로 확장 가능한 연어 목록을 활용하여 교육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본 장에서는 제 3 절에서 살펴 본 명사 중심의 연어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연어 교육 방안을 다루고자 한다.

1. 명사 중심 연어 교육 방안의 모형 설계

학습자들이 수업 목표를 달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행되는 모든 활동과 요소를 계획하는 수업 설계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명사 중심 연어 교육 방안의 모형을 설계해 보고자 한다.

최근 한국어 교육에서는 일반적으로 PPP 수업체계의 형식을 활용하고 있으나 수업 내용에 따라 다양한 수업 체계를 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중에서 OHE 방법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이 연구는 학습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표현영역을 중요시하므로 기본 틀은 PPP 방법을 따르고 내용 및 세부 교육 방법은 OHE 방법을 활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교육 방안 연구에 앞서 PPP 방법과 OHE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PPP 수업체계는 연어 교육에서 전통적인 수업 방식으로 제시 단계(Presentation), 연습 단계(Practice), 표현 단계(Production)의 3단계 교육 방법으로 이루어진다.³⁴⁾

제시 단계는 교사는 실물자료나 그림 등의 시청각 자료를 제시하여 학습자가 상황을 이해하도록 하고 교사는 정보제공자의 역할을 하며 학습자는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듣는다. 연습 단계는 새로운 언어항목을 학습자가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한다. 표현 단계에서는 의사소통활동 단계로 연습 단계에서 익힌 문형을 학습자 주변의 이야기에 적용시켜 실재상황을 가정하고 대화하는 과정이다.

다음으로 OHE 수업체계는 학습자가 학습 자료를 통해 언어항목, 어휘 항목을 인지할 수 있는 관찰(Observation)단계와 학습자가 관찰단계에서

34) PPP 수업체계는 1986년 Byrne에 의해 연구되었다.

발견한 어휘 항목의 의미 기능과 적절한 사용방법을 분석하고 내재된 규칙에 대한 가설(Hypothesis)을 도출해 보는 두 번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학습자들이 어휘항목을 통합적으로 자유롭게 탐구·시도(Experiment)하여 자신감이 생기게 하는 의사소통 표현 단계가 있다.

아래 표는 어휘적 접근법에서 OHE 교육 방법의 3단계 과정을 구성한 것이다.

<표 50> OHE 교육 방법론

단계		특징
관찰	인지·인식을 위한 과제	- 학습자 중심 - 하향식(top-down)접근 - 언어사용과 유창성에 초점 - 개념과 인지 중심의 학습과정 중심 - 교수항목의 통합적 학습 - 과제 중심, 내용 중심, 코퍼스 중심의 교수-학습
가설	관찰·발견을 위한 과제	
실험	탐구·시도를 위한 과제	

지금까지 살펴본 PPP 방법과 OHE방법은 내용면에서는 OHE 방법이 더욱 자율적인 학습 참여도를 중요시하는, 어휘 교육 방법이다.³⁵⁾ 그러나 PPP 방법과 OHE 방법이 모두 제시-연습-표현과 관찰-가설-실험이라는 3단계로 이루어져 형식적으로 유사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교육 방안은 학습자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본 틀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PPP 수업체계를 따르고, 내용이나 세부 교육 방법은 학습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OHE 방법을 보완하여 활용한다.

이 연구에서 3단계의 과정의 교육 방법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언어의 제시 단계는 언어 의미망을 통해 언어 관계 연상하

35) 이종은(2004)에서는 한국어 의존용언을 어휘적 접근으로 연구하면서 Lewis(1993) 이론과 Schmitt(2000), Batstone(1996), Tomlinson(2003), Thornbury(1997)에서 논의되고 인지 개념을 주요 바탕으로 하는 언어 학습 이론인 ‘인지와 인식(Noticing Language Awareness)’을 첨가하여 ‘OHE’를 교수 방법론으로 발전시켰다. 또한 PPP 방법과 OHE 방법을 비교 실험 하여 어휘력 측면에서 OHE 학습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기³⁶⁾, 사진이나 그림 자료 제시하기 등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어휘를 인지하는 과정이다. 학습자가 쉽게 연상할 수 있는 언어는 간단한 사진이나 그림 자료로 제시하고, 연상이 어려운 언어는 언어 정보가 많은 미디어자료를 활용한다. 언어 제시 단계는 어휘 교육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이 단계가 활발하게 진행되면 다음 단계의 수업 진행이 수월하게 된다. 따라서 언어의 제시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언어를 능동적으로 연상할 수 있는 브레인스토밍³⁷⁾ 방법과 명사가 결합할 수 있는 언어를 분류하여 제시하여 구성하면 더욱 효율적인 수업이 가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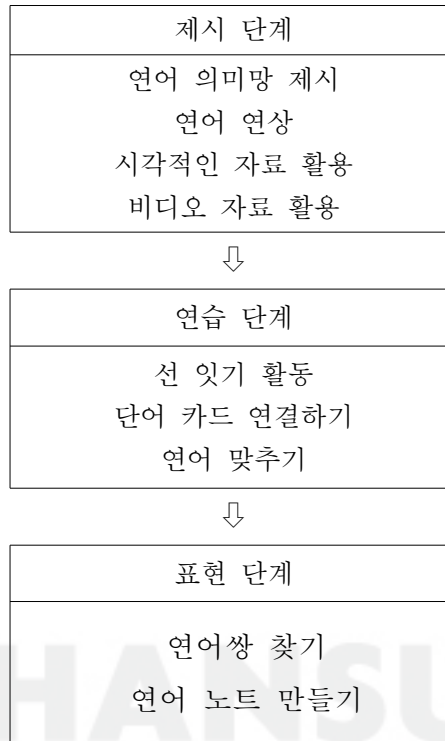
두 번째, 어휘 연습 단계는 어휘 제시 단계에서 학습한 언어를 명사를 중심으로 분류한 자료를 학습하여 학습자가 새로운 언어에 익숙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 방법으로는 선 잇기 활동, 단어 카드 연결하기, 언어 맞추기 게임 등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습한 언어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표현 단계는 연습 단계에서 충분히 익힌 언어를 활용하는 과정이다. 곧 각 단계에서 익힌 언어를 최종 확인하는 단계로서 연습 단계에서 언어쌍 찾기, 언어 노트 만들기 등의 교육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36) 박선옥(2008)에서는 어휘 연상 활동을 통한 어휘 학습법에 대해 네 가지 장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단어 학습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고 둘째, 학습자 집단이 가지고 있는 어휘장을 단어 학습 대상 어휘로 채택할 수 있으며 셋째, 단어 사용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습자가 능동적인 활동을 통해 학습의 적극적인 주체로 참여하여 학습의 효과가 커진다는 장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37) A. Osborn이 1941년에 개발한 브레인스토밍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원의 사고를 자극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하게 하는 것으로 과제 전 표현 단계에서 학습자들이 간단한 그림을 보고 자유연상을 하여 다양한 단어, 구, 문장을 말하거나 쓰게 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활동이다.

<그림 2> 연어 교육 방법



따라서 <그림 2>의 연어 교육 방법 세 단계를 통해 학습자는 자연스럽게 연어를 학습하게 된다. 이때 교사는 연어 제시 단계에서 학습자가 학습이 용이하도록 연어를 명사를 중심으로 범주화시키고, 형태적으로 같은 유형을 묶어 제시한다면 학습자의 이해와 암기가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다음에서는 <그림 2>의 연어 교육 방법을 구체화하여 명사 중심의 연어 교육 방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2. 명사 중심 연어 교육 방안의 실제

(1) 제시 단계

연어의 제시 단계는 시청각적인 자료를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 사용하는지를 학습하는 단계이다. 또한 교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연어를 연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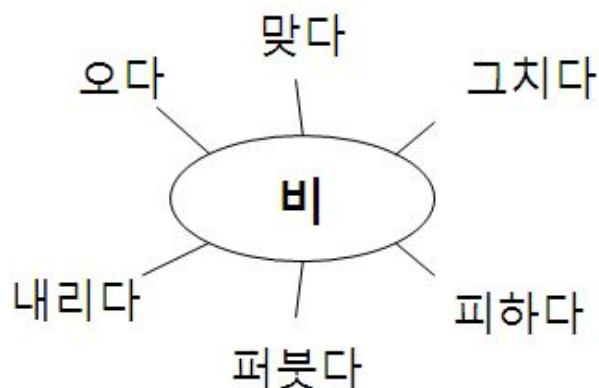
할 수 있도록 제시하면 한국어 학습자가 연어를 유추하고 어휘를 학습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처음 연어를 익히기 때문에 실제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흥미를 갖도록 해야 한다. 교사는 연어 의미망 제시, 연상하기, 간단한 사진이나 그림 자료와 연어 정보가 많은 비디오 자료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유추하도록 유도한다.

연어 교육에서 제시 단계를 효과적으로 진행한다면 다음 단계의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므로 교사는 제시 단계부터 학습자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1) 연어 의미망 활용하기

의미망(semantic map)이란 어휘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려주는 그림이자, 학습자들에게 연어를 구조화하고 의미를 시각화, 구체화할 수 있게 하는 활동이다. 학습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들을 활용하여 연어를 만들어 봄으로써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연어 쌍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한꺼번에 학습할 수 있다.

<그림 3> 명사 연어핵 ‘비’의 연어 의미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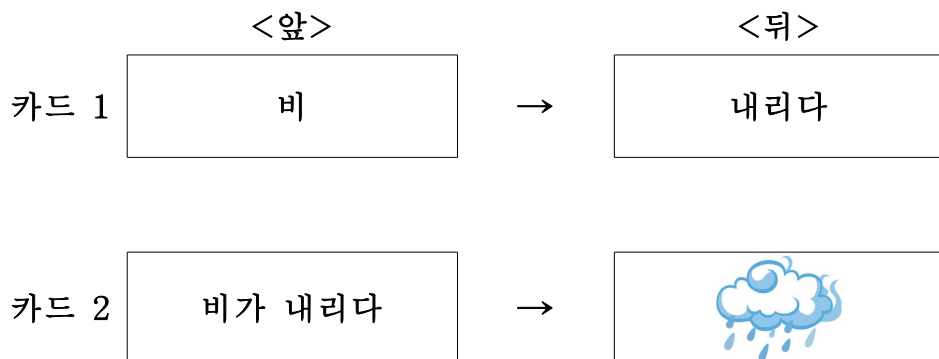


<그림 3>과 같이 교사는 칠판 한가운데에 명사 연어핵을 쓰고 적당한 수의 방사선을 그린 다음 학습자들로 하여금 그 단어와 어울리는 연어 쌍을 말해보도록 한다. 학습자들의 참여를 유도해 용인 여부와 관계없이 생각나는 모든 어휘들을 발표시키고 일단 발표된 모든 어휘들을 방사선 끝에 쓴다. 이후에 어울림의 정도를 토론해 보거나 사전을 통해 더 나은 연어 쌍을 찾는 활동을 하는 것은 어휘의 연어 관계는 물론 그 어휘의 정확한 쓰임을 이해하기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2) 그림 카드 제시하기

그림 카드 제시하기는 명확한 의미가 전달되는 연어를 그림 카드를 이용하여 가르치는 방법이다. 카드의 앞면에 연어를 쓰고, 뒷면에 그림을 제시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연어가 한 단어임을 인식하게 할 수 있다. 한국어 학습자 조사를 사용할 때 많은 오류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조사가 없는 단어 카드를 각각 제시하고, 나중에 조사와 함께 제시된 단어 카드를 제시하면 학습자들이 자연스럽게 조사의 사용을 익힐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 명사 연어핵 ‘비’의 연어 그림 카드



(2) 연습 단계

연습 단계는 제시 단계에서 연어를 익힌 후의 단계로, 상황과 맥락에 맞는 연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단계이다. 연어 제시 단계에서 학습한 연어를 형태별로 분류한 후 연습하여 연어에 익숙해지는 방법으로 빈칸 채우기, 직업 명칭 맞추기 게임이 있고, 다양한 상황 문제 해결하기로 다양한 연어를 연습할 수 있다.

1) 선 잇기 활동

전 수업시간에 배웠던 연어를 인지한 후에 다음과 같은 선 잇기 활동을 할 수 있다. 단어의 뜻을 사전적 의미로 풀어주는 것보다는 다음과 같이 가능한 표현의 예를 들어주는 것이 더 구체적이며 활용도도 높다. 연결시킨 연어를 타 학습자와 함께 읽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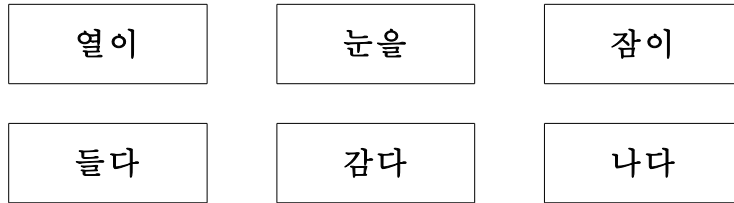
<그림 5> 명사를 중심으로 한 선 잇기 활동

- | | | |
|----------|-------|-------|
| 1. 부르다 • | • 눈 • | • 뜨다 |
| 2. 감다 • | • 비 • | • 그치다 |
| 3. 쓰다 • | • 돈 • | • 벌다 |
| 4. 내리다 • | • 배 • | • 고프다 |

2) 단어 카드 연결하기

단어 카드 연결하기는 각 단어가 쓰인 카드를 뒤집어서 나열하고 연어 짝을 찾아 연결하는 방법이다. 수업 마지막 부분에 학습한 학습자들이 연어를 인지했는지 확인할 때 유용한 활동이다. 연어로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병행하면 학습자의 연어 이해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명사를 중심으로 한 단어 카드 연결하기 활동



3. 표현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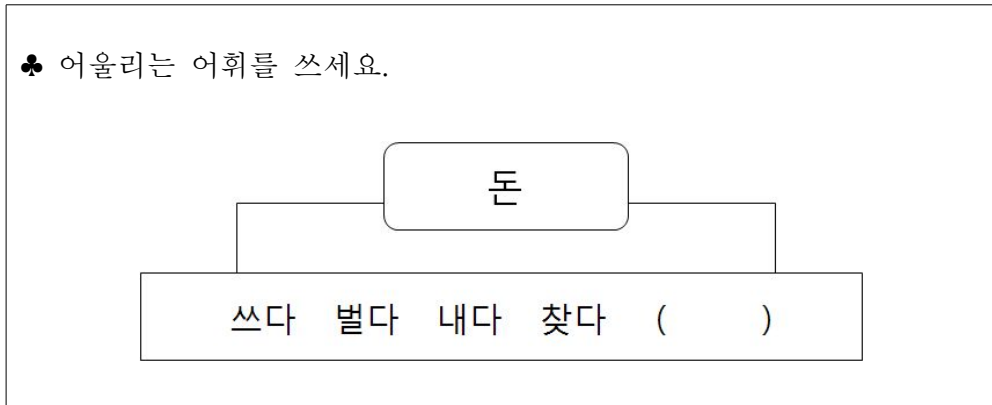
학습한 연어를 활용한 표현 단계는 연습 단계에서 익힌 연어를 활용하는 과정이다. 즉 각 단계에서 익힌 어휘를 최종 확인하는 단계인데, 각 단계에서 익힌 연어를 최종 확인하는 단계로서 연습 단계에서 연어쌍 찾기, 연어 노트 만들기 등의 교육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1) 연어쌍 찾기

단어 학습은 단순히 반복적으로 접하는 것보다 인지적, 정의적으로 깊이 있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촉진된다. 때문에 학습자들이 해당 단어를 조작하고 다른 단어와 관련지으며 자신의 경험과 연결 짓는 활동이 바람직할 것이다.

학습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들을 활용하여 연어를 만들어봄으로써 용인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연어쌍을 함께 학습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명사 연어핵을 쓰고 그 단어에서 연상되는 단어를 말해보도록 한다. 학습자의 참여를 북돋우기 위해 생각나는 모든 단어들을 자유로이 발표하도록 한다.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교사도 유용한 단어들을 준비하여 왜 문맥이 어색한가를 이야기해보는 것도 연어의 정확한 쓰임을 이해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능동적으로 새로운 연어를 학습할 수 있고 작문 영역도 향상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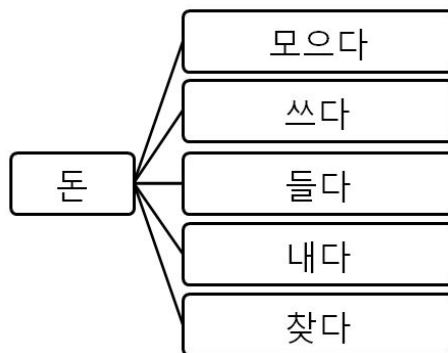
<그림 7> 명사를 중심으로 한 연어쌍 찾기 활동



2) 연어 노트 만들기

Lewis(2000:78~81)에서 제시된 지도 방안을 수정, 보완한 활동 중 하나로 연어 지도에서 학습자의 자율성이 가장 많이 요구되며, 선별적인 어휘 도입과 이미 배운 어휘에 대한 연어장의 확장에 필수적인 활동이다. 노트 정리의 원칙은 매 수업시간마다 1개씩 교사가 명사 연어핵을 지정해 주고 개인별 또는 그룹별로 그 핵심어와 함께 연어를 이루는 항목을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림 8> 명사를 중심으로 한 연어 노트 만들기의 예



교사는 <그림 7>과 같이 준비한 표를 학생들에게 나누어주고 명사 연어핵과 함께 연어를 표에 기록하도록 한다. 빈 칸을 한꺼번에 채우기보다는 수업 중 일정 부분의 연어를 학습하고 나머지 공백은 학습자 스스로 채워나가도록 지도하고 향후 추가 기록을 위해 하단에 여백을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매 수업 종료 전 5-10분 정도의 복습 기회를 가지면서 학습자 스스로 어떤 연어 관계를 기록했는지 간단한 발표와 토론의 시간도 가질 수 있다.

본고에서 제시한 명사를 중심으로 한 연어 교육 방안이 모든 학습자에게 유용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연어를 활용한 어휘 학습은 연어를 실제 이용함에 있어 함께 쓰는 표현, 즉 ‘눈’이라는 어휘를 개별어휘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눈’과 함께 함께 쓰이는 ‘내리다’를 연결하여 ‘눈이 내리다’라는 연어 표현을 가르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어휘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눈이 내리다’와 함께 ‘눈이 오다, 눈이 그치다’ 등과 같이 명사 연어핵인 ‘눈’과 연관된 연어를 함께 학습하면 연어의 이해와 기억에 도움이 된다. 위에서 몇 가지의 명사 연어핵을 중심으로 한 연어 교육 방법을 제시하였으나 이 외에도 더욱 많은 연어 교육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명사’를 중심으로 하여 연어 표현을 함께 제시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으로 의의를 두도록 한다.

제 5 장 결 론

본 연구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관점에서 학습자를 위한 연어 목록을 작성하고 이들의 연어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연어 교육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 효과적인 연어 교육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교육의 중심이 되는 교재에 실린 연어 목록을 추출한 후 언어핵이 되는 명사를 중심으로 각 연어의 교재별 출현 분포와 한국어 연어사전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또한 선정된 명사 어휘들을 중심으로 유의미한 연어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실제적인 교육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어휘 교육 중 연어 교육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명사 어휘의 분포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며, 나아가 교실 현장에서 효과적인 연어 교육을 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언어는 구성 요소가 습관적으로 결합하는 구절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의도적, 선택적으로 교육되고 학습되어야 하는 교육적 필요성이 큰 어휘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언어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관점에서 ‘긴밀한 공기 관계를 보이는 두 개의 어휘 요소간의 제한된 결합’으로 보고 한국어 교재 분석을 통해 객관적 방법으로 1,095개의 언어를 토대로 추출한 총 426개의 명사 언어핵 목록을 선별한 후 출현빈도에 따라 15개의 명사 언어핵을 선정하였다.

언어교육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육현장에서는 그 위상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 본고는 이러한 상황에서 언어를 가르치는 의의를 탐색하고 그 속에서 언어 지도의 방법을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한국어 교육 내에서 연어 교육은 독자적인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언어를 교육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명사를 중심으로 연어 확장 목록을 제시하였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한국어 학습자와 교사에게 언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향후 교실 이외의 상황에서 새로운 언어를 접했을 때 보다 적

극적으로 수용하고 인지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 줄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구체적인 언어 교육의 방안들은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언어 교육 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실제 교육에 적용되었을 때 학습자의 언어 사용 기능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제 1장에서는 언어가 갖는 특성과 본고의 목적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을 고찰하였다.

제 2장에서는 오늘날 언어 교육에 있어 그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어휘 교육의 대상이 개별 어휘가 아니라 다양한 층위의 개별 어휘들이 결합 관계를 이루고 있는 덩어리말(chunk)임을 설명하고, 학습자에게 이러한 결합 관계를 가장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언어 교육의 중요성에 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언어의 개념에 관한 국어학과 한국어 교육에서의 다양한 관점을 정리하여, 이를 토대로 한국어 교육의 대상으로서 언어의 개념을 ‘긴밀한 공기 관계를 보이는 두 개의 어휘 요소간의 제한된 결합’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그 범주에 자유 결합과 관용어를 제외하였고, 한국어 사용 빈도가 큰 ‘체언+용언’의 언어 학습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제 3장에서는 국내 교육 기관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교재를 대상으로 언어 목록을 추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언어 교육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각 기관별 교재의 단계별 학습량을 비교 분석하여 각 교재별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다.

제 4장에서는 명사 중심의 언어 교육을 위해 명사를 추출하는 작업을 하였다. 한국어 교재에서 추출된 언어를 명사를 언어핵으로 하여 분류하였으며 선정된 명사와의 언어 관계를 살핌으로서 언어 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명사를 언어핵으로 한 언어 관계를 중심으로 언어 교육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재 안에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언어 학습을 모색해 봄으로써, 최근 언어 교육의 흐름에 발맞추어 어휘 교육에 중심을 둔 교육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언어 능력의 가장 효과적인 확장 수단으로서의 언어 교육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언어 교육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동기를 유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모든 언어 유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교재에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언어 목록을 제시하는 다음의 과제로 남겨 두었다. 앞으로 언어와 관련하여서는 교재 편찬 뿐 아니라 학습 방법, 도구의 개발 등에 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부족하나마 본 연구가 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현화(1997), “[체언+용언]꼴의 연어 구성에 대한 연구”, 『사전 편찬학 연구』 제8집, 한국문화사.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김명호(2004), 초등학생의 영어 연어(collocation) 습득 실태 및 지도방안,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보영(2008),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에 나타난 어휘분석 : 고빈도 동사 + 명사구 연어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진해(2000), 국어 연어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하수 외(2007),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연어 사전』, 커뮤니케이션 북스.
- 문금현(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관용표현의 교육”, 『이중언어학』, 제 15호, 이중언어학회.
- 문금현(2002), “한국어 어휘교육을 위한 연어(連語)학습방안”, 『국어교육』 제109호(2002.10),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 문화관광부(2000), “한국어 교육 기초 어휘 의미 빈도 사전의 개발” 사업 보고서, 문화관광부 한국어 세계화 추진 위원회.
- 박선옥(2008), “한국인과 중국인의 단어 연상의미 조사 분석과 단어 연상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 방법, 『한국어 의미학』 제25호, 한국어 의미학회.
- 박숙영(2005), 한국어 어휘 교육을 위한 연어 활용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현정(2007),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연어 교수 학습 방안,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현주(2008), 중·고등학교 영어학습자의 연어(collocation) 이해 정도와

- 지도 방안 : 연어사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혜숙(2008), 한국어 교재의 연어 제시 방안 연구 : 독일어 교재와의 비교를 바탕으로,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사모토 마리(2002),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어 교육 연구 : 동사형 관용어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영주(2008), 고등학교 영어 학습자의 연어 사용 능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지영(2008),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부사류+용언’형 연어 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수향(2005), 연어 오류 분석을 통한 어휘 교육 연구 : 러시아어권 학습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동혁(1998), 국어의 연어적 의미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민성(2008), 한국어 연어 교재 개발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석주(2002), “이중언어교육과 문화교육 : 한국어 문화의 내용별, 단계별 목록 작성 시고”, 이중언어학 제21호, 이중언어학회
- 이승연 · 최은지(2007),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적 연어 사용 연구”, 이중언어학 제34호, 이중언어학회.
- 이영미(2005), 코퍼스에 근거한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에 나타난 <동사+명사구> 연어 분석,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희(2004), “한국어 교재의 문법 기술 방식 -높임법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제25호, 이중언어학회.
- 이희자(1995), “현대 국어 관용구의 결합 관계 고찰”, 『대동문화연구』 3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 임근석(2006), “한국어 연어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임지룡(1992), 『국어의미론』, 탑출판사.
- 임홍빈(2002), “한국어 연어의 개념과 그 통사·의미적 성격”, 『국어학』

제39호, 국어학회.

조현용(2000), 『한국어 어휘교육 연구』, 박이정.

최현배(1929), 『우리말본』, 정음사.

한송화·강현화(2004), “언어를 이용한 어휘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 교육 15-3호, 국제 한국어 교육 학회.

2. 국외문헌

Hill, Jimmie(2000), "Revising priorities: From grammatical failure to collectional success", In: Michael Lewis(ed.), 『*Teaching Collocation-Further development in the lexical Approach*』, Language Teaching Publications.

Lewis, Michael(2000), "Introduction of Teaching collocation - Further development in the lexical Approach", In: Michael Lewis(ed.), 『*Teaching collocation - Further development in the lexical Approach*』, Language Teaching Publications.

Firth, J. R.(1957), "A synopsis of linguistic theory", 1930-1955, 『*In Studies in Linguistic analysis, Special Volume of the Philological Society*』. Oxford: Blackwell.

3. 한국어 교육용 교재

경희대학교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부(2000), 『한국어』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고급1, 고급2, 경희대학교출판부.

서강대학교 한국학센터(2008), 『서강한국어』 1A, 1B, 2A, 2B, 3A, 3B, 4A, 4B, 5A, 5B, 서강대학교출판부.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2000), 『한국어』 1, 2, 3, 4, 문진미디어

성균어학원(2006), 『배우기 쉬운 한국어』 1, 2, 3, 4, 5, 6,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연세대학교한국어학당(2008), 『연세한국어』 1, 2, 3, 4, 5, 6, 연세대학교출판부.

이화여대학교 언어교육원(2004), 『말이 트이는 한국어』 Student Book I , II, III, IV, V, 이화여대 출판부.

한국어문화연수부(2000), 『한국어』 , 1, 2, 3, 4, 5,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부 록】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명사를 중심으로 한 어휘적 연어 관계

명사 연어핵	연어 관계
가격	이 세다
가방	을 들다, 을 메다
가슴	이 뛰다
가을	을 타다
가치	를 부여하다
가치관	을 심어주다, 을 형성하다, 을 확립하다
각광	을 받다
갈등	을 겪다, 을 빚다, 을 해소하다, 심화되다
감기	가 낫다, 에 걸리다
감동	을 받다
값	을 깎다, 이 나가다
강의	가 없다, 가 있다, 를 듣다, 를 받다
거품	을 내다
결레질	을 하다
걸음	을 걷다
겉	이 나다, 이 많다
게으름	을 피우다
견문	을 넓히다
견적	을 내다
경기	를 뛰다, 에 나가다
경의	를 표하다
경치	가 좋다
계약	을 하다
계획	을 세우다, 이 없다, 이 있다
고개	를 끄덕이다, 를 돌리다, 를 숙이다
고기	를 재우다
고무줄	을 끊다
고민	을 털어놓다, 을 해결하다, 이 생기다, 이 있다
고집	을 부리다, 이 세다
고충	을 털어놓다, 이 따르다
고향	에 내려가다
곤혹	을 치르다

곰팡이	가 슬다
공기	가 탁하다, 를 마시다
과거	에 급제하다
과목	을 듣다
과일	이 무르다
관계	를 맺다
관심	을 가지다, 이 많다, 이 없다, 이 있다
교훈	을 주다
구경	을 가다
구두	를 신다
구멍	이 나다
구슬	을 따다, 을 맞히다, 을 치다
국도	를 타다
그림	을 그리다
금슬	이 좋다
기대	가 되다, 가 크다
기분	이 나쁘다, 이 상하다, 이 좋다
기승	을 부리다
기억	에 남다, 이 나다
기저귀	를 풀다
기증	을 받다
기타	를 치다
기회	가 없다, 가 있다, 로 삼다
깍지	를 끼다
껌	을 씹다
피	가 생기다
꾸중	을 듣다
꿈	을 꾸다, 을 이루다
나라	를 세우다
나무	를 심다
나이	가 들다, 를 먹다
낙엽	이 지다
난방	이 되다
날	을 잡다
날씨	가 나쁘다, 가 좋다, 가 풀리다
납득	이 가다
냄새	가 나다, 를 맡다
넥타이	를 매다
녹	이 슬다
녹초	가 되다
논란	이 일어나다
높이	를 맞추다
눈	에 띄다, 에 선하다, 을 감다, 을 돌리다, 을 뜨다, 이 나빠지다, 이 부시다

눈	을 치우다, 이 그치다, 이 내리다, 이 쌓이다, 이 오다
눈길	을 끝다
눈물	을 닦다, 을 흘리다, 이 나다
능청	을 떨다
다리	가 부러지다, 를 떨다, 를 빼이다
다리	를 빼이다
단풍	이 들다, 이 물들다, 이 지다
달	이 뜨다
담배	를 끊다, 를 피우다
대가	를 치르다
대상	을 받다
대접	을 받다
대출	을 받다
대회	에 나가다
더위	를 먹다, 를 식히다, 를 타다
덕	을 보다
도둑	을 맞다, 이 들다
도시락	을 싸다
도움	을 구하다, 을 청하다
돈	을 건다, 을 내다, 을 들이다, 을 따다, 을 벌다, 을 쓰다, 을 아끼다, 을 잃다, 을 찾다, 이 돌다, 이 들다
돌	을 치르다
동호회	에 들다
두각	을 나타내다
두통	이 심하다
등지	를 틀다
들통	이 나다
등	을 밀다
땀	을 흘리다, 이 나다
때	가 타다
마늘	을 다지다
마당	을 쓸다
마을	을 다스리다
마음	에 두다, 에 들다, 을 나누다, 을 먹다, 을 열다, 을 졸이다, 이 무겁다, 이 생기다
마찰	을 겪다, 을 일으키다, 이 심하다
말	을 건네다, 을 걸다, 을 시키다, 이 나오다, 이 통하다
맛	을 보다, 이 있다
망신	을 당하다
맞장구	를 치다
매력	에 빠지다
머리	를 감다, 를 깎다, 를 식히다, 를 자르다, 에 이다
먼지	를 털다
메달	을 따다

메모	를 남기다
메시지	를 남기다, 를 보내다, 를 확인하다
먹	을 감다
면허증	을 따다
명복	을 빌다
명성	을 얻다
모임	을 가지다
목	이 마르다, 이 붓다
목소리	가 굵다, 가 쉬다, 가 좋다
목숨	을 끊다, 을 잃다
목표	를 세우다, 를 정하다
몸	에 좋다, 을 가꾸다, 을 담그다, 이 떨리다, 이 붓다, 이 약하다
무게	를 재다
무릎	을 꿇다
문	을 나서다
문제	가 생기다, 를 내다, 를 일으키다, 를 풀다, 를 해결하다
문제점	을 낳다
물	에 빠지다, 이 빠지다
물가	가 비싸다, 가 싸다
물기	가 빠지다, 가 잡히다, 를 빼다
미소	를 짓다
바둑	을 두다
바람	이 강하다, 이 불다, 이 약하다
바위	에 새기다
바이올린	을 켜다
반지	를 끼다
발목	을 빼다
밥	을 짓다
방귀	를 뀌다
배	가 고프다, 가 부르다, 를 채우다
배드민턴	을 치다
버릇	을 고치다
번개	가 치다
번호표	를 뽑다
벌	을 받다
범벅	이 되다
범	을 지키다
벨	이 울리다
벼락	을 맞다
변비	에 걸리다
별	을 따다
병	에 걸리다, 을 앓다, 이 나다
별	이 들다
보고서	를 내다

보수	가 좋다
보험	에 들다
복	이 나가다
볼륨	을 올리다
부도	가 나다
부상	을 입다
부작용	이 생기다
부탁	을 들어주다
분위기	가 나쁘다, 가 좋다
불	에 데다, 을 끄다, 을 때다, 을 피우다, 이 나다
불안감	을 덜다
불관	을 갈다
불편	을 기치다, 을 덜다
비	가 그치다, 가 내리다, 가 오다, 가 퍼붓다, 를 맞다
비디오	를 찍다
비밀	을 지키다
비중	을 두다
비판	을 받다
빛	을 같다, 이 나다
빛	이 비치다
사랑	에 빠지다, 을 나누다
사력	을 다하다
사업	을 꿈꾸다
사연	을 보내다
사원	을 뽑다
사이	가 좋다
사진	을 찍다, 이 나오다
살	을 빼다, 이 바지다, 이 찌다
상상력	이 풍부하다
상투	를 틀다
상황	에 처하다
색	을 밝히다
생각	을 전하다, 이 나다, 이 들다
생떼	를 쓰다
생일	을 맞다
성격	이 밝다, 이 좋다
성의	가 없다
세탁기	를 돌리다
소란	을 떨다
소리	가 나다, 를 내다, 를 지르다
소매치기	를 당하다
소식	을 듣다
소신	을 잃다
소포	로 부치다

속	이 불편하다, 이 쓰리다
손	을 대다, 을 들다, 을 베다, 이 가다
손뼉	을 치다
수다	를 떨다
수도	를 틀다
수수료	를 내다
수업	에 들어가다, 을 듣다, 이 끝나다
수저	를 들다
숙제	가 밀리다, 를 내다
술	술에 취하다, 을 따르다, 을 줄이다
술래	를 정하다
숨	을 거두다, 을 쉬다, 이 멎다, 이 차다
스케이트	를 타다
스트레스	가 쌓이다, 가 풀리다, 를 받다, 를 풀다
슬럼프	에 빠지다
습관	을 들이다
습기	가 많다, 가 차다
승부	가 나다, 를 가리다
시각	을 넓히다
시간	에 쫓기다, 을 관리하다, 을 내다, 을 들이다, 을 때우다, 이 걸리다, 이 나다, 이 빠듯하다, 이 생기다, 이 없다, 있다, 이 지나다, 이 흐르다
시계	를 차다
시험	에 붙다, 에서 떨어지다, 을 보다
식욕	이 없다
신명	이 나다
신문	에 나다
신발	을 신다
신의	를 저버리다
신청서	를 내다
신호	가 가다
실력	을 키우다, 이 늘다
실례	가 되다
실수	를 저지르다
심부름	을 시키다
싸움	이 일어나다
아기	를 재우다
아쉬움	이 남다
아이	를 보다, 를 울리다, 를 키우다
아이디어	를 내다
안경	을 끼다, 을 쓰다
알	이 깨지다
양탈	을 부리다
야단	을 맞다, 을 치다

약	을 바르다, 을 짓다
약속	을 미루다, 을 어기다, 을 지키다, 을 취소하다
양말	을 신다
애기	가 통하다
어깨	를 들쩍이다, 에 메다
어이	가 없다
얼굴색	이 좋다
엄벌	에 처하다
엑스레이	를 찍다
여유	가 많다, 가 생기다, 가 없다, 가 있다, 를 부리다
여행	을 하다
역사	에 드러나다
연락	이 끊기다
연체료	를 내다
열	이 나다, 이 높다, 이 있다
영향	을 미치다, 을 받다, 을 주다
오해	가 쌓이다, 가 풀리다, 를 받다, 를 사다
옥	에 갇히다
올림픽	이 열리다
옷	을 짓다
외모	를 가꾸다
외상	을 얻다
요금	을 내다
욕심	을 부리다, 이 많다
용기	가 나다, 를 내다, 를 잃다, 를 주다
용돈	을 쓰다
우물	에 비치다
우산	을 쓰다
운	이 나쁘다, 이 좋다
운명	을 맞추다
울음	을 그치다, 을 터뜨리다
웃음	을 띠다, 이 나오다, 이 돌다
원서	를 내다
원	을 그리다
월급	을 받다, 을 타다
위로	를 받다
위치	에 오르다
유리	를 깨다
은혜	를 갚다
음식	을 나누다, 을 내놓다, 을 시키다, 이 상하다, 에 맞추다
음악	에 맞추다, 을 틀다, 이 흐르다
음악회	가 열리다
의견	이 팽팽하다
의문	을 가지다

의심	을 사다
의욕	이 생기다
이	가 빠지다, 를 닦다
이름	을 떨치다
이사	를 오다
이유	를 대다
인기	가 많다, 를 누리다
인라인	을 타다
인사	를 가다
인연	이 있다
인정	을 받다, 이 없다
일	을 망치다, 을 익히다, 이 생기다
일교차	가 심하다
일정	을 잡다
입맛	에 맞다, 이 없다
입장	을 바꾸다, 을 밝히다
자격증	을 따다
자료	가 날아가다, 를 찾다
자신	이 생기다, 이 없다
자신감	이 생기다
작전	을 벌이다
잔디	를 깎다
잔치	를 벌이다
잘못	을 범하다
잠	을 설치다, 을 자다, 이 들다, 이 오다
장가	를 가다
장갑	을 끼다
장례식	을 치르다
장면	을 놓치다
재미	를 붙이다
재채기	가 나다
전기	가 나가다, 들어오다
전보	를 치다
전화	가 걸리다, 가 끊기다, 가 오다, 를 걸다, 를 끊다, 를 바꿔주다, 를 받다, 를 잘못 걸다, 를 주다
절개	를 지키다
절정	에 달하다
점검	을 받다
점심	을 내다
정	을 쌓다, 이 들다
정보	를 얻다
정성	을 다하다, 이 담기다, 을 쏟다
정책	을 세우다
정체성	을 갖추다

제	를 올리다
제사	를 드리다, 를 지내다
조언	을 구하다, 을 따르다, 을 아끼지 않다
조의	를 표하다
조화	를 이루다
줄음	이 쏟아지다
중	을 치다, 이 올리다
종말	을 맞다
주문	을 받다
주사	를 맞다, 를 맞히다
주의	를 기울이다, 를 주다
줄	에 서다, 을 서다
증명서	를 떼다
지배	를 받다
지원	을 받다
직업	으로 삼다, 을 구하다, 을 옮기다
진찰	을 받다
질문	이 없다, 이 있다
집	을 꾸리다, 을 들다, 을 풀다
집	을 짓다
짜증	을 부리다, 이 나다
차	가 달리다, 가 막히다, 가 밀리다
창의성	이 풍부하다
채널	을 돌리다
책임감	이 강하다
처방전	을 받다
천둥	이 치다
철	이 없다
첫눈	에 반하다
체구	가 작다
체구	로 거르다
체중	이 늘다
초대	를 받다
초상	을 치르다
총	을 쏘다
추앙	을 받다
추위	가 풀리다
축제	가 열리다
충혈	이 되다
취미	를 가지다
치성	을 드리다
침	을 튀기다
카드	로 내다
컴퓨터	를 끄다, 를 치다, 를 켜다

코	가 막히다, 를 풀다
콧물	이 나다
큰길	이 나오다
클로버	를 따다
키	가 크다
탈	이 나다
태풍	이 불다
턱	을 괴다
텐트	를 치다
토대	를 만들다
트집	을 잡다
파도	가 일다
파일	을 열다
팔자	가 세다
편지	를 부치다
폐	를 기치다
표	가 나다
피	가 나다
피해	를 입다, 를 주다
핀잔	을 듣다
핑계	를 대다
학교	에 나오다
한계	에 부딪히다
한눈	에 반하다
한숨	이 나오다
합성	을 지르다
해	가 뜨다, 가 지다
해석	을 내리다
핸드폰	을 끄다, 을 켜다
햇빛	이 강하다
행실	이 바르다
향	이 배다
현실	이 되다
협동심	이 강하다
호감	이 가다
호통	을 치다
홍수	가 나다
화	가 나다, 가 풀리다, 를 내다, 를 풀다
화면	이 끊기다
화해	를 시키다, 를 청하다
활	을 쏘다
회사	에 들어오다
효과	가 있다, 를 거두다
효성	이 지극하다

후배	를 챙기다
휴가	를 떠나다
흥미	를 잃다
힘	을 쓰다, 을 주다, 이 들다, 이 생기다, 이 세다, 이 없다



두 교재 이상 공통으로 제시된 연어목록

급수	항목	교재별 등급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초급	감기에 걸리다	○	○	○	○	○		○
	값을 깎다	○				○		
	강의를 듣다				○			○
	계획을 세우다						○	○
	골프를 치다			○				○
	관심이 많다	○						○
	구름이 끼다	○					○	
	기대가 되다						○	○
	기분이 좋다	○	○					○
	기억에 남다			○			○	○
	기침이 나다	○		○				
	길이 막히다		○	○	○			○
	꽃이 피다	○	○		○			
	꿈을 꾸다		○	○	○			○
	날씨가 좋다			○		○		○
	노래를 부르다	○	○			○		
	눈을 뜨다			○				○
	눈이 내리다	○			○		○	
	눈이 오다				○	○	○	○
	담배를 끊다		○		○			
	담배를 피우다	○	○		○	○		
	돈을 벌다	○	○	○				○
	돈을 쓰다	○						○
	마음에 들다	○	○	○		○	○	○
	마음이 넓다			○				○
	머리를 감다	○	○				○	
	머리를 자르다	○						○
	바람이 불다	○	○	○	○	○	○	○
	방해가 되다	○						○
	배가 고프다	○	○	○	○			○
	배가 부르다		○	○				○
	배탈이 나다	○		○			○	○
분위기가 좋다			○				○	
불을 끄다	○		○					
비가 그치다	○					○		
비가 내리다	○				○	○		
비가 오다	○	○	○	○	○	○	○	
사진을 찍다	○	○	○		○		○	

	살을 빼다		○					○
	살이 빠지다						○	○
	살이 찌다	○	○			○		
	생각이 나다		○		○			○
	소리를 내다		○		○			
	소리를 지르다		○					○
	소화가 되다			○			○	○
	스키를 타다			○				○
	스트레스가 쌓이다		○					○
	스트레스가 풀리다		○					○
	스트레스를 풀다		○					○
	시간이 나다			○	○			
	시간이 있다	○						○
	시험을 보다	○		○				
	신경을 쓰다		○			○		
	안개가 끼다	○					○	○
	안경을 쓰다	○						○
	약속을 지키다	○				○	○	○
	열이 나다	○		○		○	○	
	입에 맞다			○				○
	잠을 자다	○			○			
	전화가 오다	○			○		○	
	전화를 걸다	○	○			○	○	
	전화를 끊다	○		○			○	
	전화를 받다		○	○	○		○	
	주사를 맞다	○						○
	줄을 서다						○	○
	춤을 추다	○	○	○	○			○
	탁구를 치다			○	○		○	
	테니스를 치다	○	○	○	○			
	피아노를 치다				○			○
	화가 나다	○	○	○	○			
	화를 내다	○	○	○	○			
중급	경험을 쌓다			○				○
	고집이 세다	○		○				
	곤란을 겪다	○						○
	그림을 그리다			○	○			
	기운이 없다			○			○	
	김치를 담그다	○			○		○	
	나이를 먹다	○			○			
	농사를 짓다			○	○			
	단풍이 들다			○				○
	돈을 벌다				○		○	
	돈이 들다	○		○	○			○

	목이 마르다	○			○			
	몸살이 나다						○	○
	밤을 새우다	○			○		○	○
	불이 나다	○		○				
	상을 타다	○			○			
	선을 보다	○			○			
	시간을 내다	○						○
	신경을 쓰다	○		○	○			
	신이 나다				○			○
	안경을 끼다			○	○			
	야단을 맞다	○			○			
	운이 좋다			○	○			
	잠을 설치다	○						○
	줄을 서다	○			○			
	짜증이 나다			○				○
	최선을 다하다	○			○			
고급	목소리가 쉬다	○		○				
	영향을 미치다			○				○
	인기를 누리다	○		○				
	틀에 박히다			○			○	
	힘을 쓰다			○			○	

ABSTRACT

A Study of Korean Collocation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Focused on the Noun-

Shin A-rang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at preparing the basic data of collocation education and groping for effective education scheme of collocation by making out collocation list for learners and examining the collocation relation of these. For this, I study appearance distribution by teaching material of each collocation and collocation dictionary of Korean language centering around noun to be language core after extracting collocation list from teaching material to be the center of education on the spo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addition, I examined significant collocation relation centering around chosen noun vocabularies and presented real education scheme through this. This work will be data to be able to grasp distribution feature of noun vocabulary to be used representatively in collocation education out of vocabulary education, and it will be utilized usefully in doing effective collocation education on the spot of classroom.

Collocation is vocabulary that educational necessity to have to be

educated and studied intentionally and selectively for smooth mutual understanding of idea is great as phrase that composition element combines customarily. Thus, in this thesis, I chose collocation core of 15 nouns in accordance with appearance frequency after selecting list of collocation core of 426 nouns extracted on the basis of 1,095 collocations with objective method through the analysis of teaching material of Korean language by regarding collocation as combination limited between 2 vocabulary elements to show close public organ relation from the viewpoi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foreign language.

Though collocation education should occupy considerably important part, the phrase was not evaluated well on the spo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this thesis, I searched for meaning to teach collocation in this situation and studied the method of collocation guidance in it. As the result, I confirmed that collocation education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has independent possibility, and presented the expansion list of collocation centering around noun, so that collocation may be utilized usefully on the spot of education.

It is deemed that these courses may make Korean language learners and teachers recognize importance for collocation and may map out a strategy to be able to accept and recognize more positively in meeting with new collocation in the situation except classroom in the future. Schemes of concrete collocation education will be able to offer direction for scheme of creative and systematic collocation education, and it is expected that they will contribute to heightening the function of collocation use of learners when they are applied to real education.

In the chapter 1, I presented feature that collocation has and presented the goal of this thesis and studied existing studies related to it.

In the chapter 2, I discussed theoretical concept and type of collocation. I examine collocation studies made existingly and study research result. As for collocation, there is difference in defining method in accordance with researchers. So, it is necessary to make concept for collocation to try to take in this thesis exact. On the basis of it, I clarified importance of collocation in vocabulary education and progressed discussion for the method of vocabulary education to use collocation.

In the chapter 3, I explained analysis and result for teaching material of Korean language which was used in this thesis. Teaching material of Korean language is element to be the center of education on the spo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medium to link teacher and learner. Through this, I examined present situation of collocation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and extracted collocation list presented in teaching material.

In the chapter 4, I chose noun list to have to study on the basis of collocation extracted from teaching material by each institution by focusing on collocation relation centering around noun and arranged collocation relation centering around noun on the basis of data except teaching material and made this into list and presented it. And, I presented diverse schemes of partially applicable or transformable collocation guidance on the spot by considering that separate time for collocation education is not being allotted in present Korean language curriculum and that collocation list or education scheme to have to guide in the teaching material of Korean language is not being presented.